3인3색

Part 2. 전략 I

새우, 고래 등에 올라타기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분석실

Strategist 이재만

E-mail: Duke7594@hanafn.com / Tel : 02-3771-7547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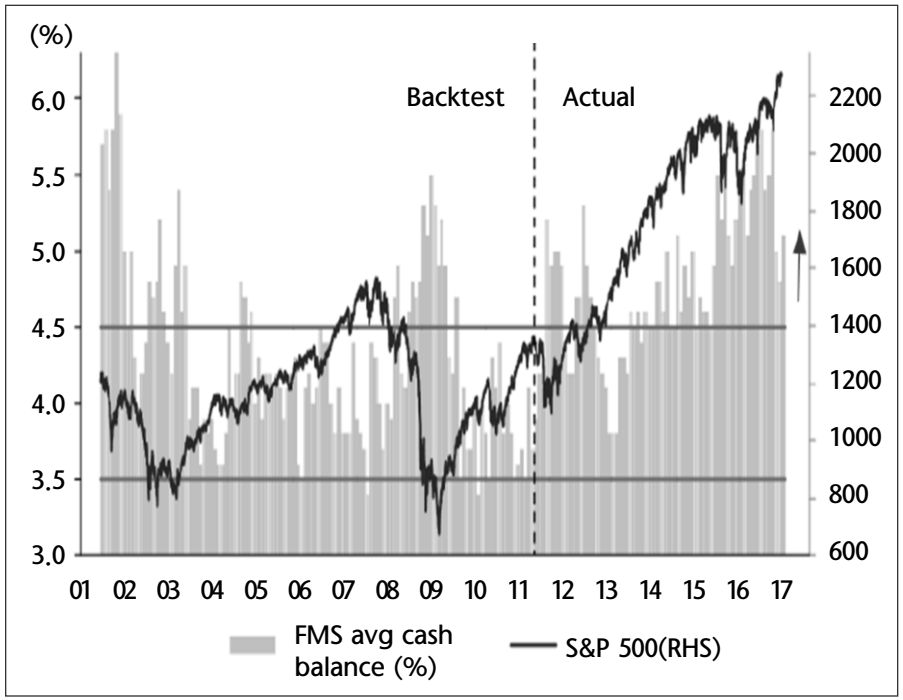
새우, 고래 등에 올라타기

- 2010년 이후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던 KOSPI 2,100pt 돌파는 확률적으로 보면 어려운 베팅. 트럼프 정책기대감 저하,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현금비중 확대, 국내 대형주 외국인 비중 최고 수준 기록 등도 조정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 ① 미국 기업은 법인세 인하의 정책 기대 유효. 현재 35% 수준의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다. 유효법인세율이 15%를 넘는 미국 상장기업의 비중은 무려 88%나 된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기업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미국은 글로벌 증시 주도주).
- ② 감세 정책이 중심이었던 2000년대 초반 미국 성장률은 1%(01년)에서 3.8%(04년)까지 높아졌다. KOSPI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2~3% 국면에서 KOSPI 연 평균수익률은 +10%(영업이익 증가율 +12%), 3% 이상 수준에서는 +32%(+31%)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
- ③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체감경기지수는 국내 수출증가율(YoY)에 2개월 선행, 수출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국내 제조업 매출액도 증가. 2017년 국내 제조업 매출액증가율(YoY)은 +7.3%로 매출감소 국면을 탈피 예상. 국내 IT, 기계, 석유/화학과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의 영업레버리지(영업이익/매출액 증가율)는 3.2(글로벌 2.7), 6.5(2.0), 10.3(6.0)으로 글로벌 대비 높다.
- ④ 국내 대미(對美) 수출제품 중 소재 및 부품과 같은 자본재와 중간재 비중이 63%로 일본(61%), 독일(58%), 중국(54%)에 비해 높다. 미국 내 최종소비재 생산 밸류체인 안에 국내 소재 및 부품이 속해 있다는 점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노선의 피해를 비껴갈 수 있는 구조 중 하나다.
- KOSPI200 외국인 체감지수는 118pt(=KOSPI200지수/원달러환율)다. 2010년 이후 KOSPI200의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정점을 형성했던 지수대는 124pt, 현재 국내 대형주 지수와 환율 수준을 감안 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입 가능성은 높다. 5~6%의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KOSPI 1분기 상단을 2,190pt. 2월 KOSPI 예상밴드를 2,020~2,150pt 제시한다.
- 첫째, IT하드웨어 업종 이익 증가 이후 자본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 긍정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증가 국면에서 IT하드웨어 기업에 대한 실적 낙수효과 나타날 것이다. 두 기업의 투자 발표 여부가 다른 IT하드웨어 기업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 둘째, 글로벌 물가지표 반등에 대한 기대는 높음.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식할 수 있다(CRB지수는 국내 제조업 매출원가에 3분기 선행). 매출원가(YoY)에 대한 매출액증가율(YoY)의 민감도가 높은 업종(가격전가력 높음)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
- 셋째, 미국 인프라투자 확대 기대는 여전하다. 미국 매출비중이 높은 씨클리컬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미국 매출 비중이 10%를 넘는 국내 씨클리컬과 미국 (씨클리컬) 업종과의 주가 상관계수는 0.73이다.
- 넷째, 미국에 중간재 성격이 강한 제품들을 납품하는 업종에 주목. 중간재 성격이 강한 제품 중 국내에서 대미(對美)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35%)와 IT(8%) 부품이다.

모두가 조정을 생각하는 시기(1): 현금 보유 전략과 정책 기대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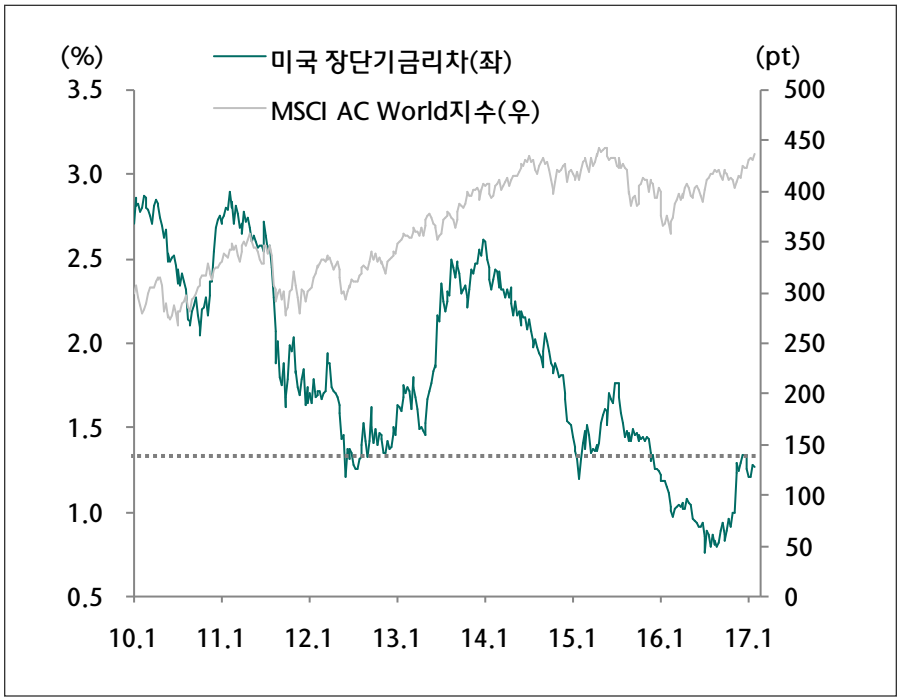
- 글로벌 주식형펀드의 현금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12월 4.8%→1월 5.1% 증가
-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다는 점. 미국 장단기금리차 1.2% 후반대에서 정체

주식형 펀드에서 높아지는 현금 비중



자료: 1/17일 BofA 자료 인용, 하나금융투자

미국 장단기금리차: 오르는 힘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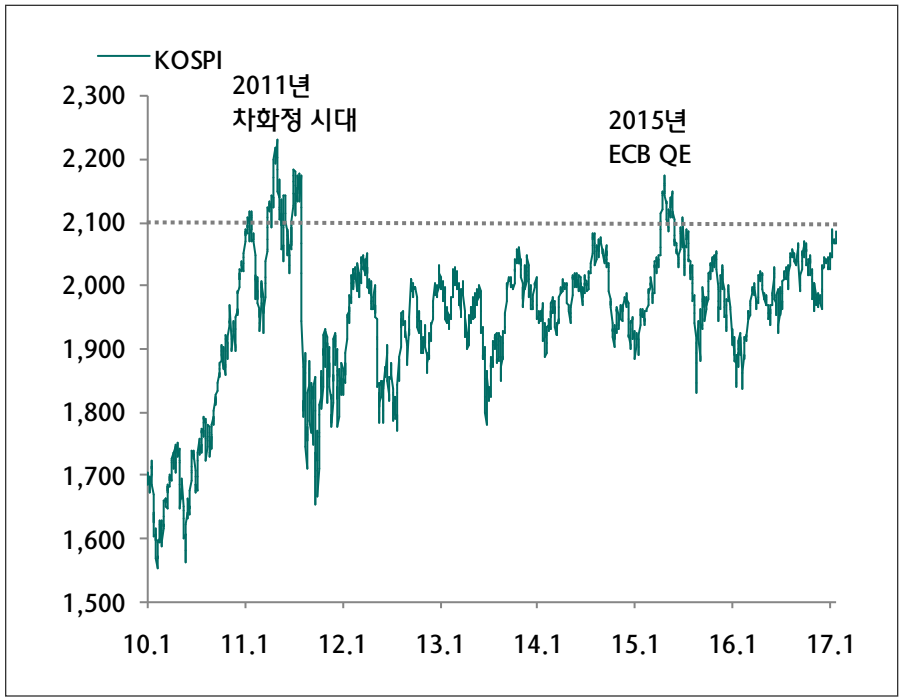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모두가 조정을 생각하는 시기(2): 어려운 확률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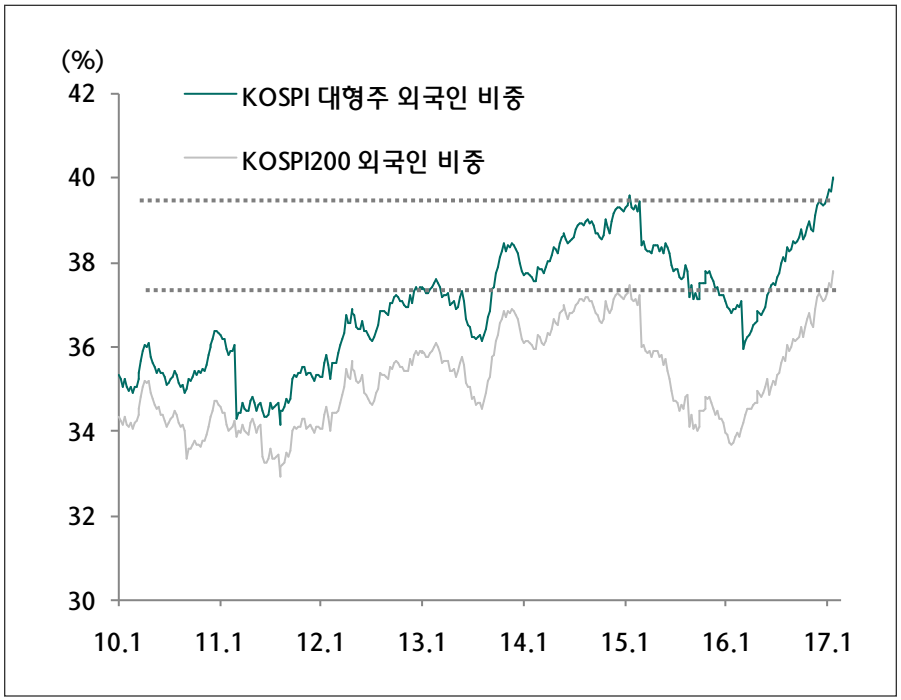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던 KOSPI 2,100pt 돌파는 경험적/확률적으로 보면 어려운 베팅이 될 수 밖에 없음
- KOSPI 대형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40%(KOSPI200 37.7%)로 2007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점이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던 KOSPI 2,100pt 돌파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근래 들어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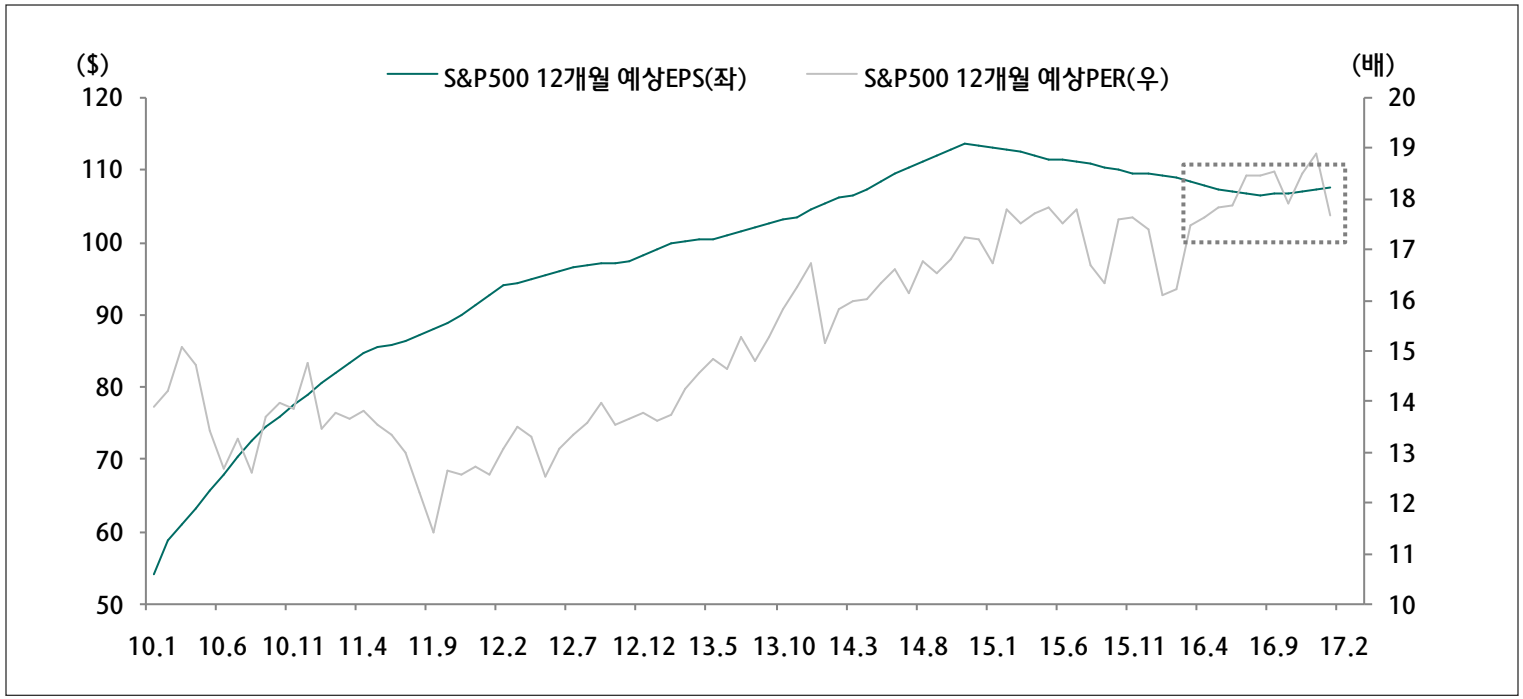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도주가 변할 것인가?

-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정체되고 반면 S&P500지수의 PER은 17.7배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표면화 될 수 있는 시기

미국 증시는 주도주 역할을 마감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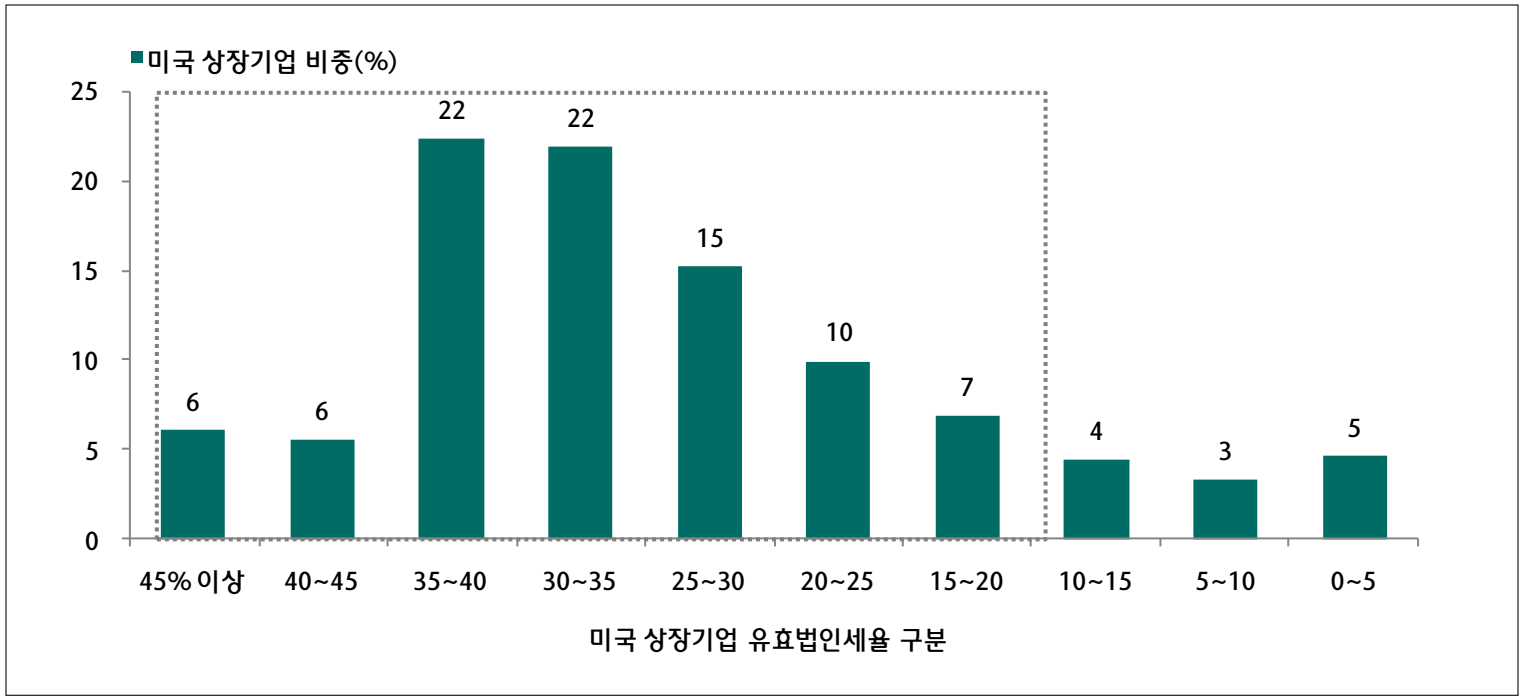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 트리거(trigger): 법인세 인하

- 단 미국 기업은 법인세 인하의 정책 기대가 남아 있음
- 현재 35% 수준의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세금인하 공약 중 하나
- 미국 상장기업들 중 유효법인세율이 15%를 넘는 기업의 비중은 무려 88%

단 미국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 기대감이 남아 있음. 이익 증가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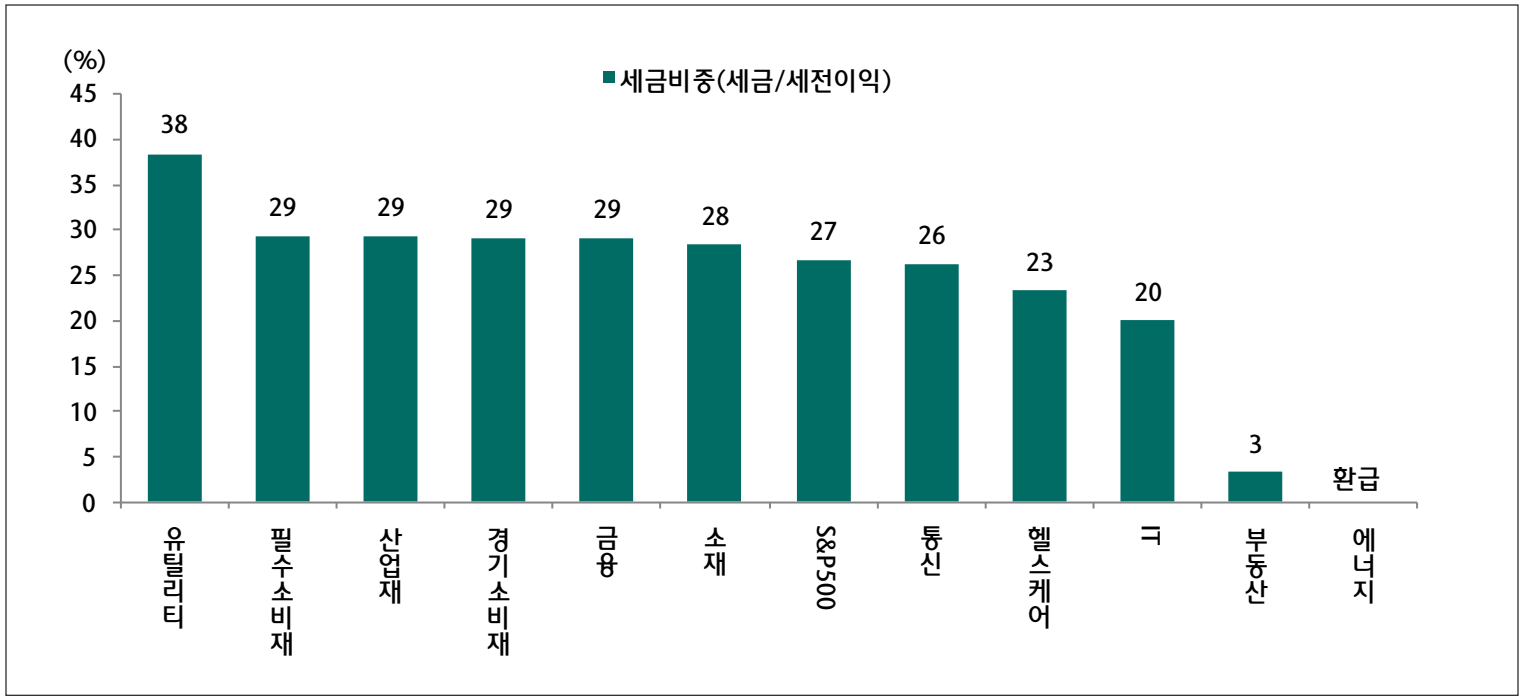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빠르면 4월 늦어도 8월까지 결정될 수 있는 미국의 세제개혁

- 트럼프 대통령: 3~4월 안에 오바마케어 폐지, 4~8월까지는 세제개혁 완료, 8월 이후에는 국경장벽 예산안 처리
- 법인세를 20% 이하로 낮출 경우 미국 기업들의 세금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

미국 상장기업 주요 섹터별 세금 비중: 유틸리티>필수소비재>산업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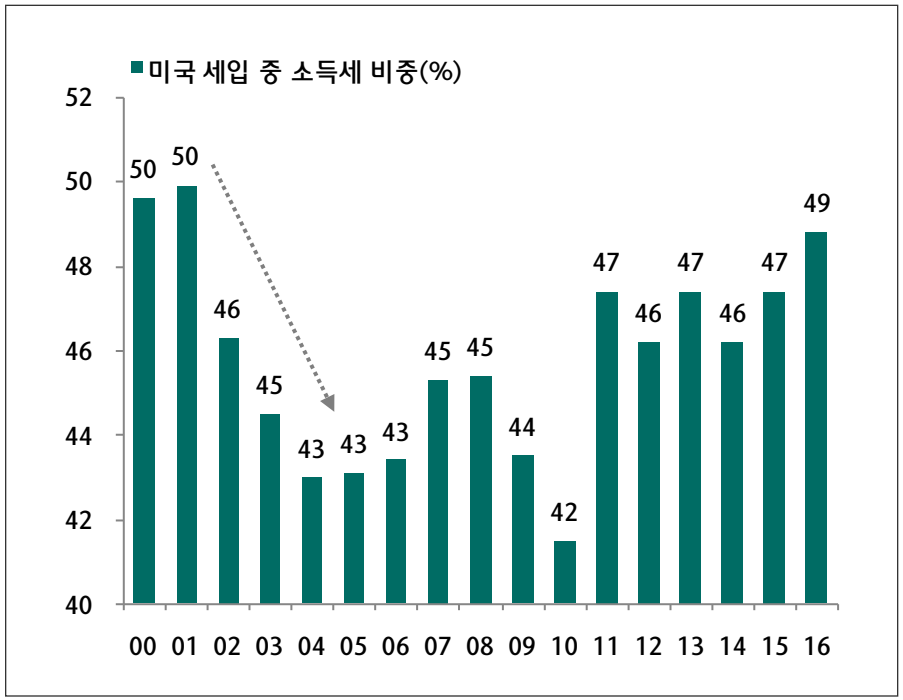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감세 효과와 국내 증시의 레버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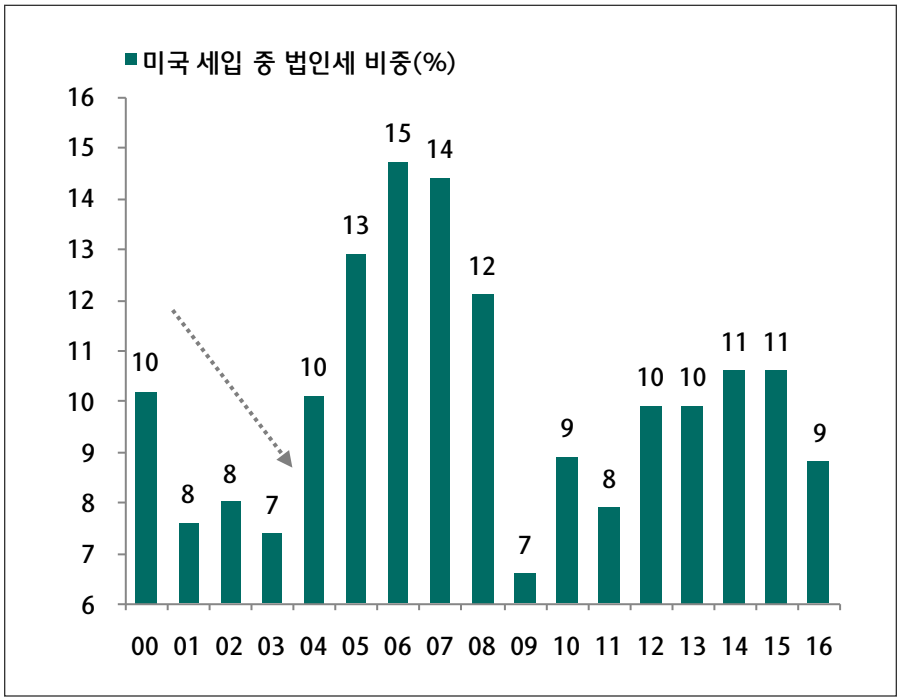
- 4분기 미국 GDP성장률이 1.9%로 예상(2.2%)보다 부진
- 단 감세 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음

2001~04년 미국 감세정책: 조지W부시 대통령 소득세 인하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2001~04년 미국 감세정책: 조지W부시 대통령 법인세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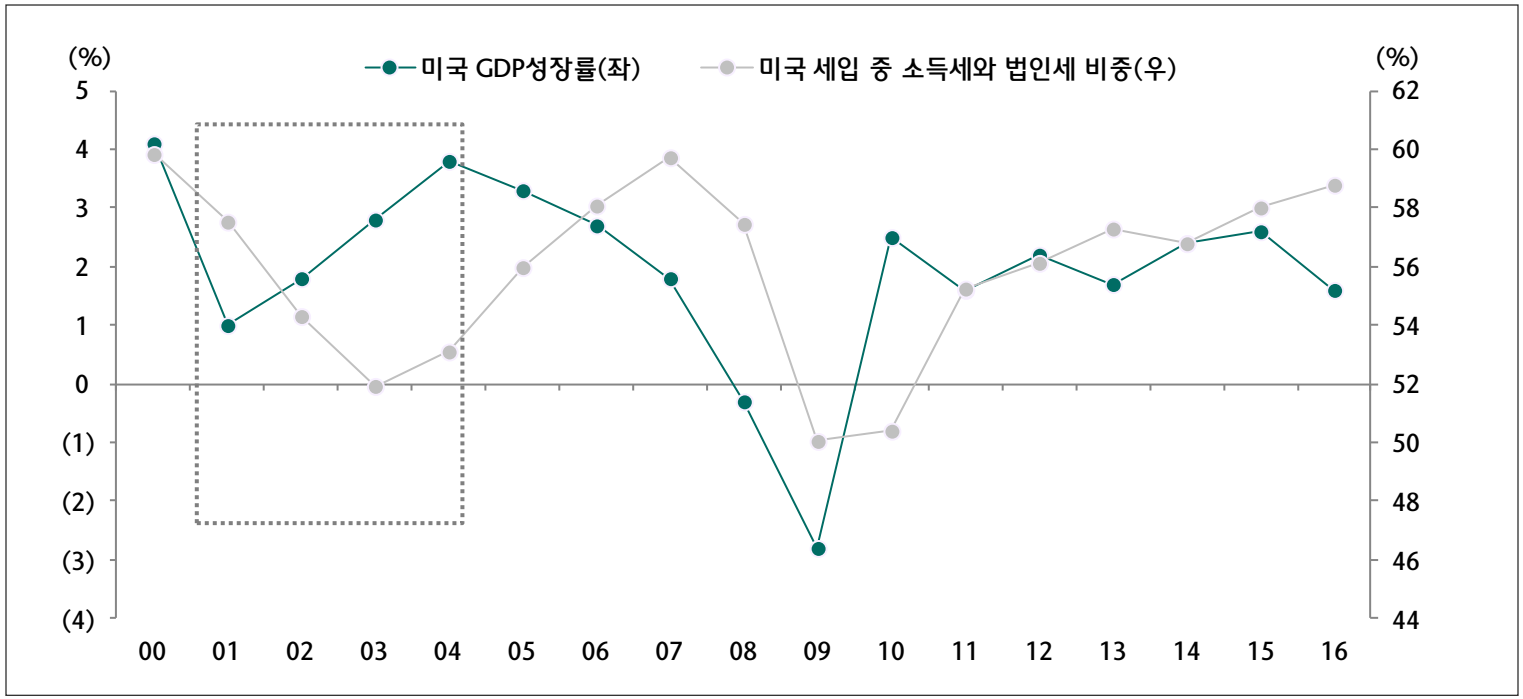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1년 1%의 성장률이 04년 3%대로 높아짐

- 2001년 미국 성장률은 1%에 불과했지만 04년 3.8%까지 높아짐
- 동 기간 동안 미국의 소득세 비중은 2001년 57.5%에서 03년 51.9%까지 낮아짐. 법인세 비중은 10%에서 7%로 낮아짐
-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현재 2.3%(2016년 1.6%)

강력한 감세정책이 실행됐던 2001~04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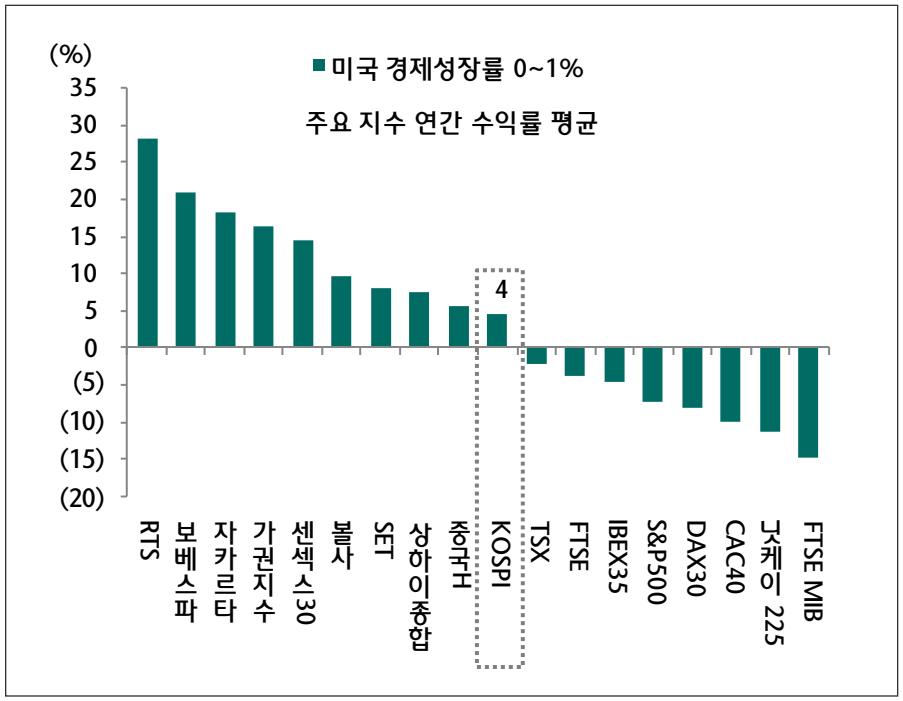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국내 증시의 레버리지 효과란(1): 미국 성장률 2% 미만에서는 별 볼일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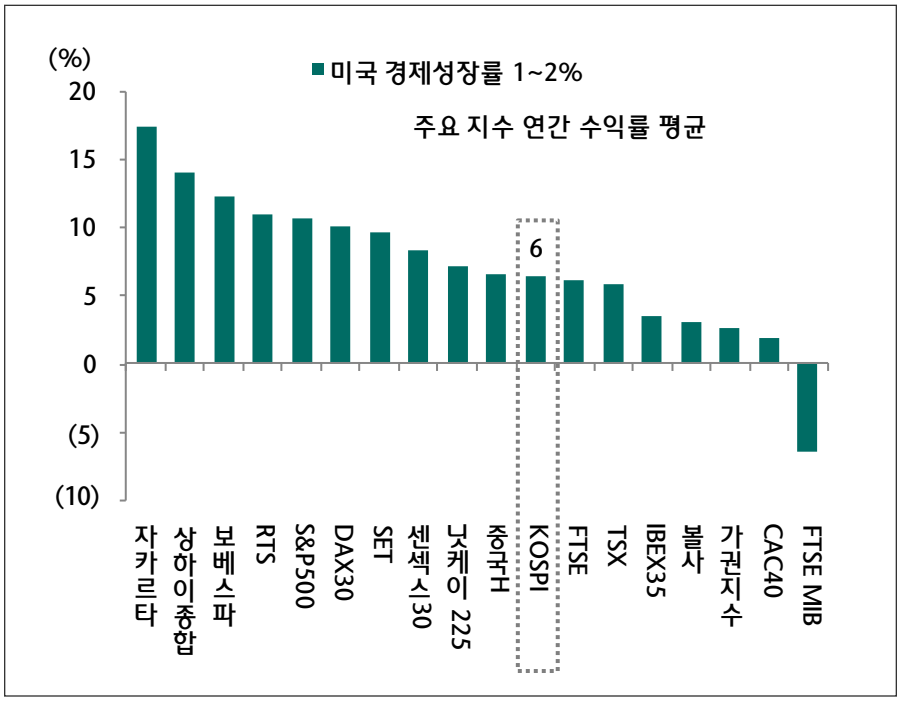
- 미국 경제성장률이 0~1% 수준인 국면에서 KOSPI 연간 수익률은 평균 +4%, 1~2% 수준에서는 +6%
- 크게 투자 매력이 높은 자산은 아님

미국 경제성장률 0~1%: KOSPI 연 평균 수익률 4%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미국 경제성장률 1~2%: KOSPI 연 평균 수익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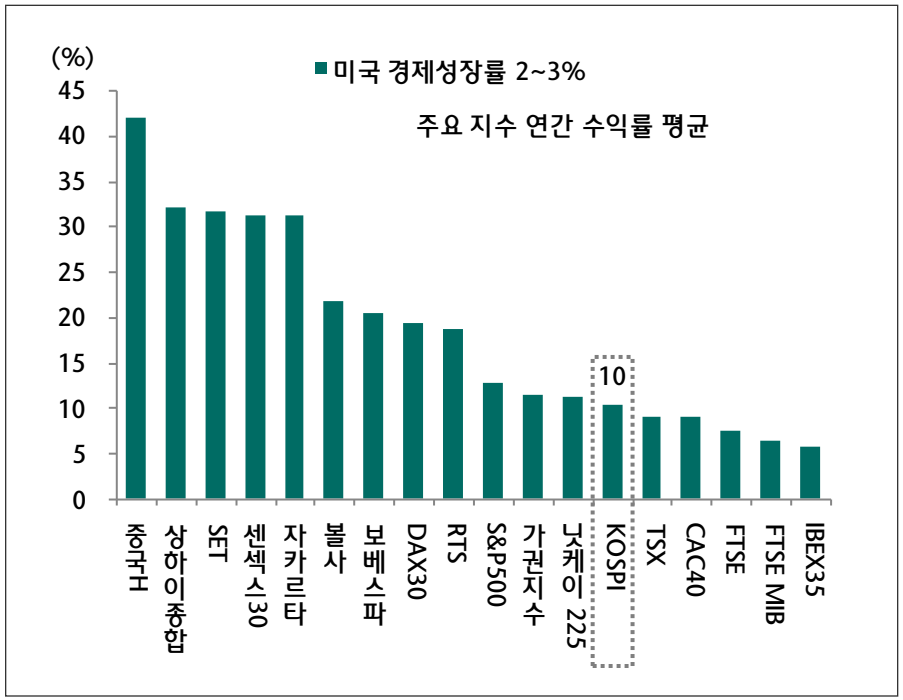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국내 증시의 레버리지 효과란(2): 미국 성장률 2%이상에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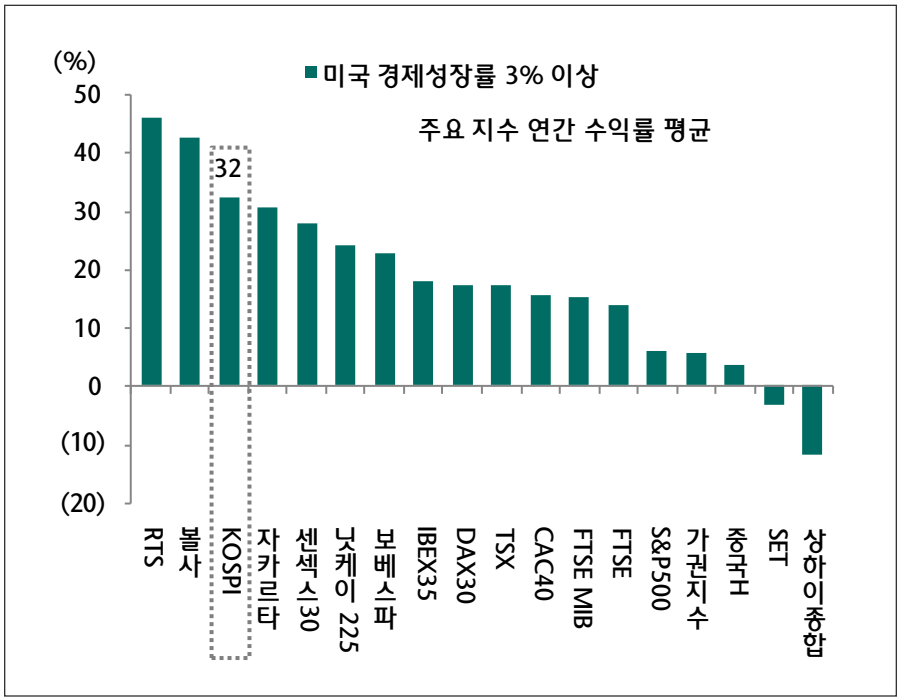
- 2~3% 국면에서는 +10%로 의미 있는 수익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3% 이상 수준에서는 +32%로 러시아 RTS지수(+46%), 멕시코 볼사지수(+42%) 다음으로 높음

미국 경제성장률 2~3%: KOSPI 연 평균 수익률 10%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미국 경제성장률 3% 이상: KOSPI 연 평균 수익률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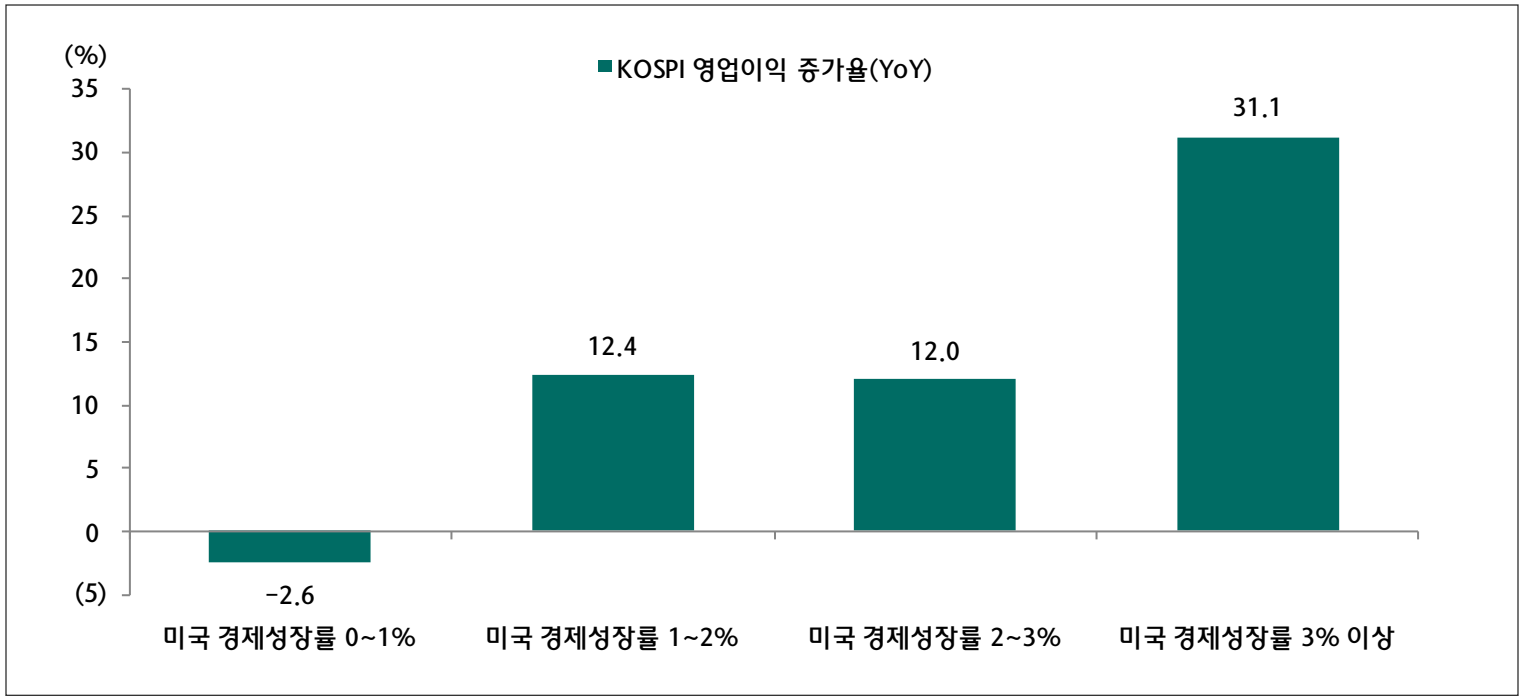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국내 증시의 레버리지 효과란(3): 영업이익 증가율도 비슷함

- KOSPI 영업이익증가율(YoY)도 -3%(미국 경제성장률 0~1%)→ +12%(1~2%)→ +12%(2~3%)→ +31%(3% 이상)
-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3%를 넘어서면 퀀텀점프(Quantum Jump)를 하는 특징이 있음

미국 경제성장률 레벨이 변하면 KOSPI 영업이익 증가율의 레벨도 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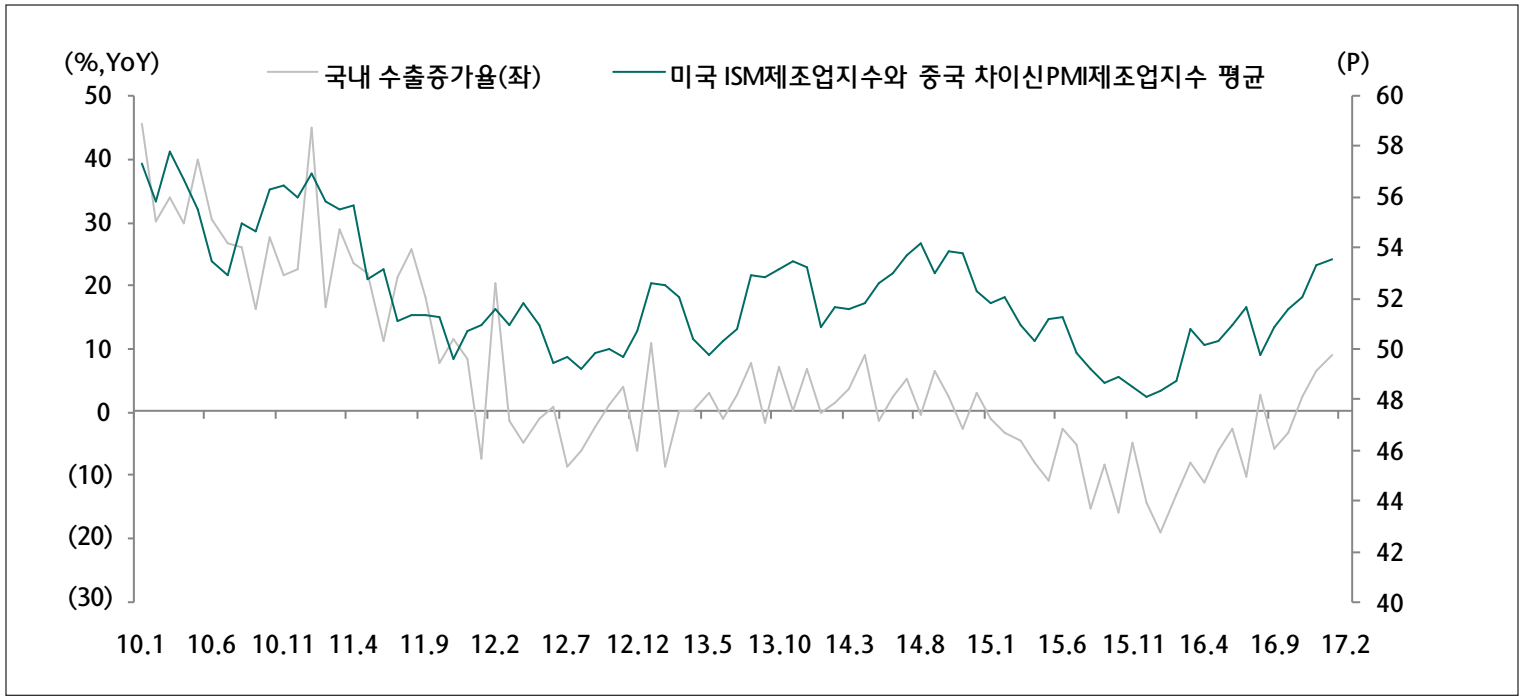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 국내 기업의 높은 영업레버리지

- 글로벌 제조업 체감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체감경기지수는 국내 수출증가율(YoY)에 2개월 선행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제조업 체감경기 개선 진행 중. 국내 수출경기에도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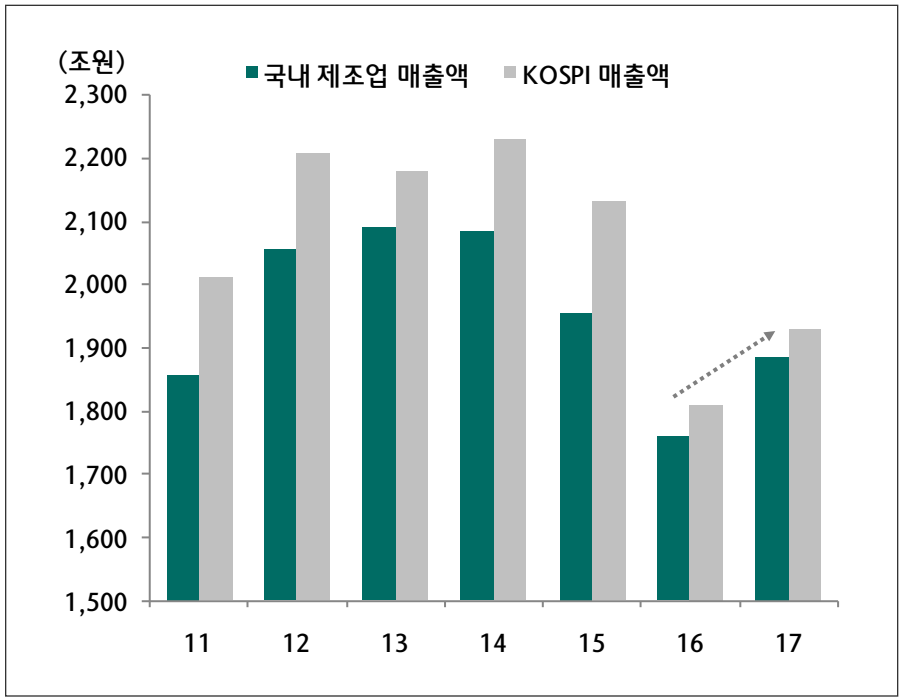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수출 개선 효과로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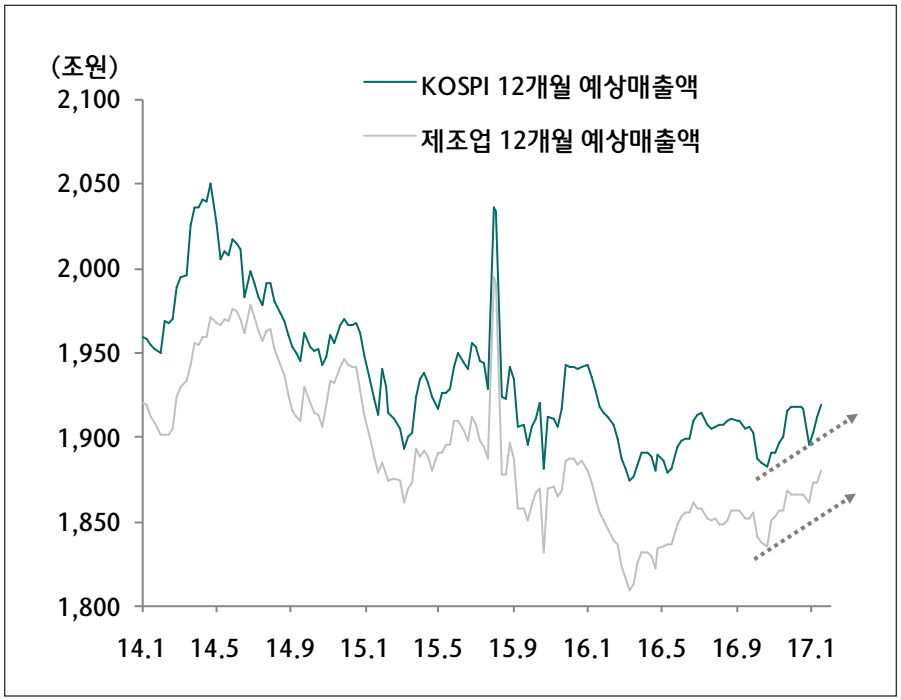
- 국내 제조업은 수출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매출액도 증가
- 2017년 국내 제조업 매출액증가율(YoY)은 +7.3%(KOSPI +6.5%)로 지난 3년간의 매출감소 국면 탈피 예상

2017년 국내 제조업 중심으로 매출 증가세 전환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출추정치 상향 조정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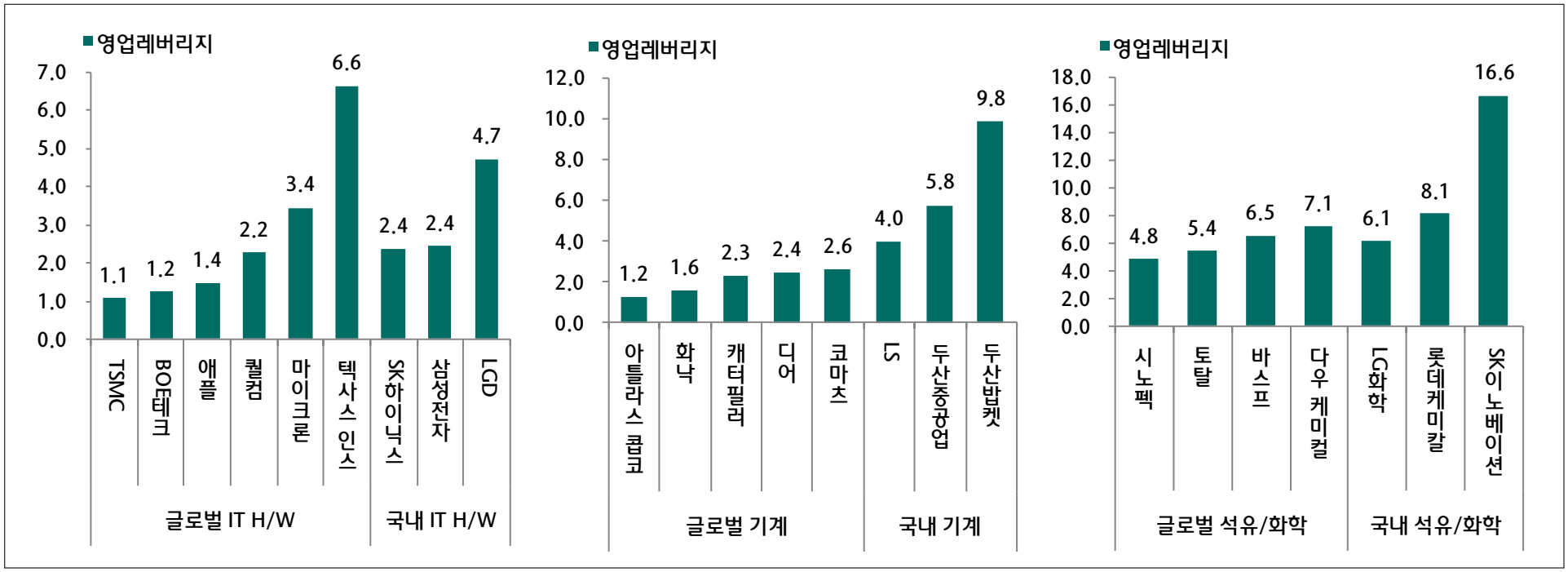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매출 개선,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제조업을 보유한 국가에는 유리

- 국내 IT, 기계, 석유/화학과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의 영업레버리지(영업이익/매출액 증가율)는 3.2(글로벌 2.7), 6.5(2.0), 10.3(6.0)으로 글로벌 대비 높음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의 영업레버리지는 글로벌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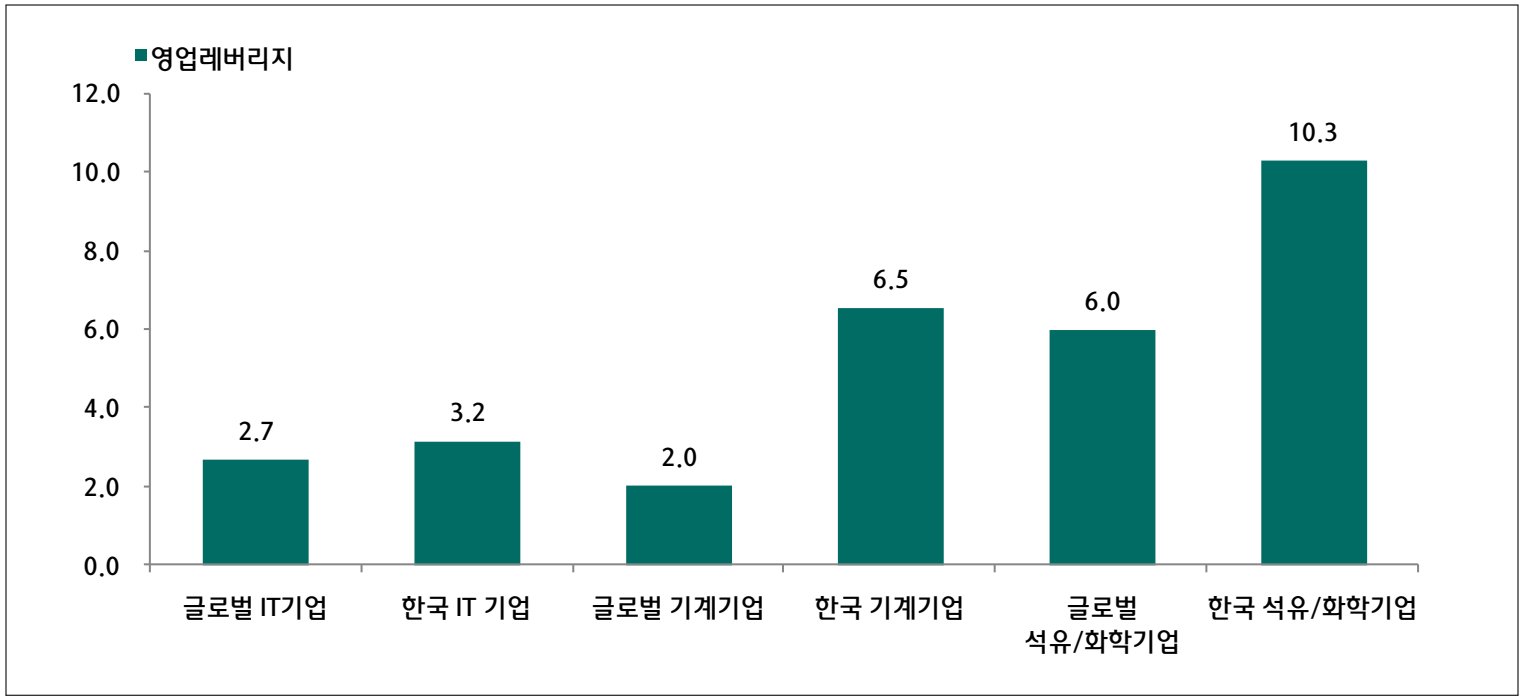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국내 제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

- 매출 증가에 대한 이익 증가의 반응 강도가 강하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국면

국내 제조업 매출증가에 대한 이익증가의 반응 강도가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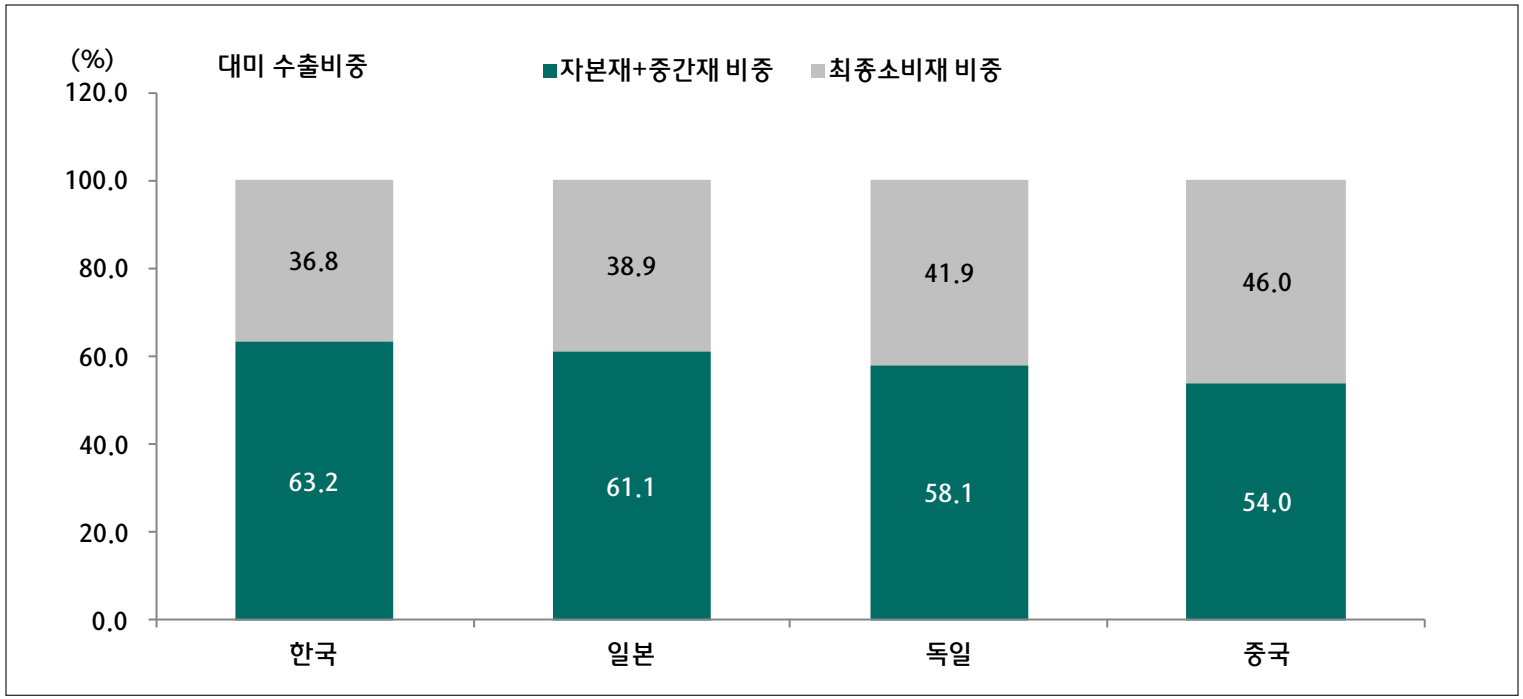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국내 수출구조: 대미(對美) 수출 중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높음

-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노선 가시화. 국내 수출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음. 단 국내 대미(對美) 수출제품 중 소재 및 부품과 같은 자본재와 중간재 비중이 63%로 일본(61%), 독일(58%), 중국(54%)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내 최종소비재 생산 밸류체인 안에 국내 소재 및 부품이 속해 있다는 점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노선의 피해를 비껴갈 수 있는 구조 중 하나

국내는 다른 제조업 경쟁국에 비해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비중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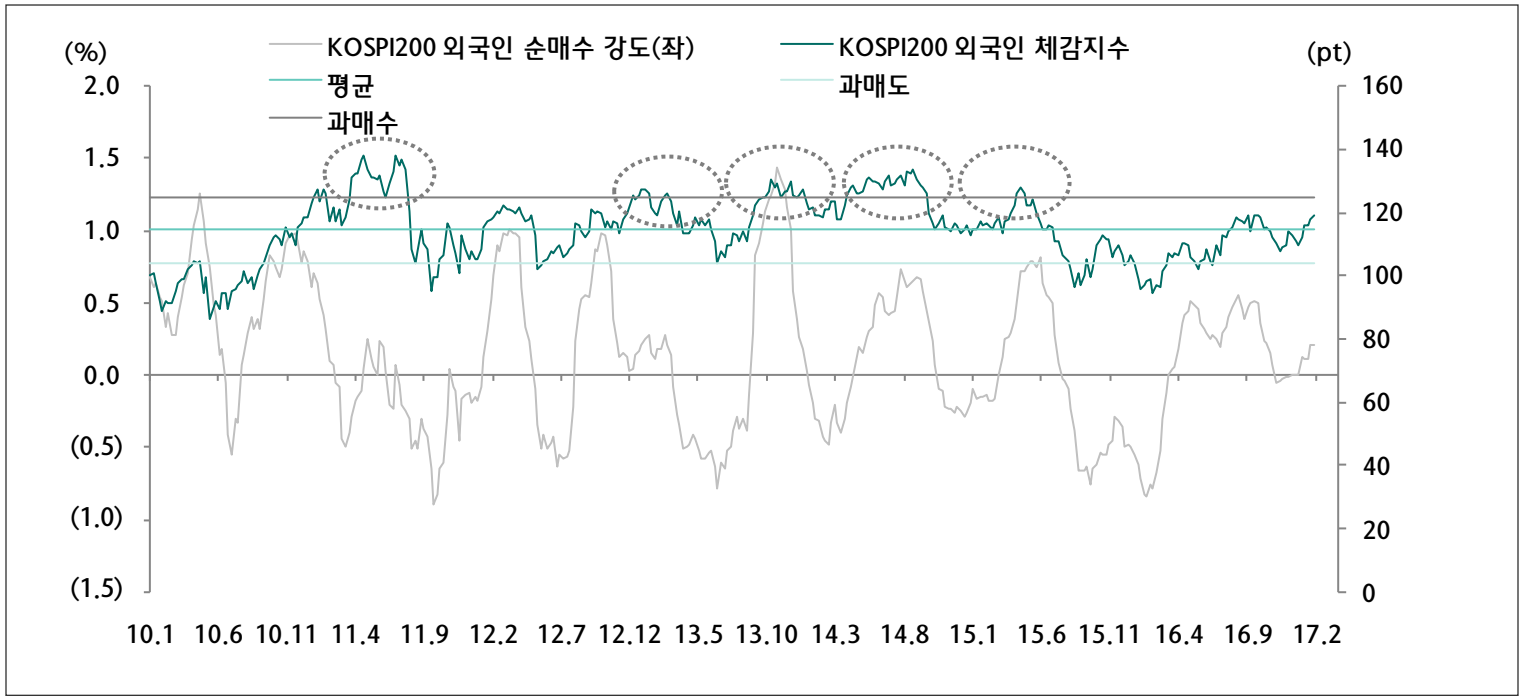


자료: WITS, 하나금융투자

대형주의 외국인 체감지수 감안 시 5%의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음

- KOSPI200의 외국인 체감지수를 추정해 보면 118pt(=KOSPI200지수/원달러환율, 2010.1.8=100)
- 2010년 이후 KOSPI200의 외국인 순매수 강도(=KOSPI200 외국인 12주 누적 순매수 금액/시가총액*100)가 정점을 형성했던 지수대는 124pt,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국인 매수는 빠르게 축소
- 현재 국내 대형주 지수와 환율을 감안 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입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판단

KOSPI200 외국인 체감지수가 아직은 과열 국면까지는 가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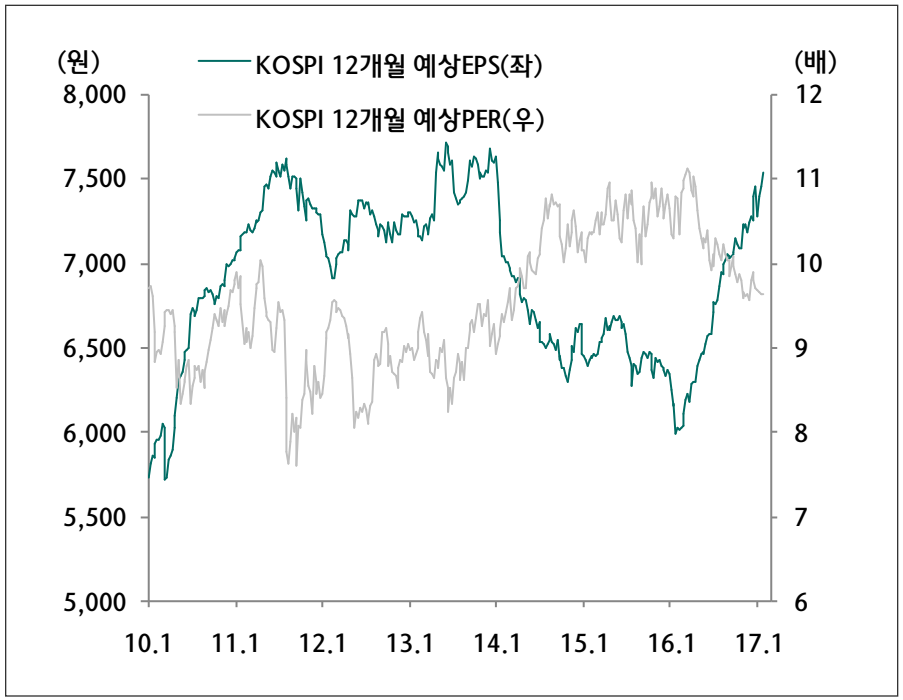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KOSPI EPS와 PER을 감안 시 6%의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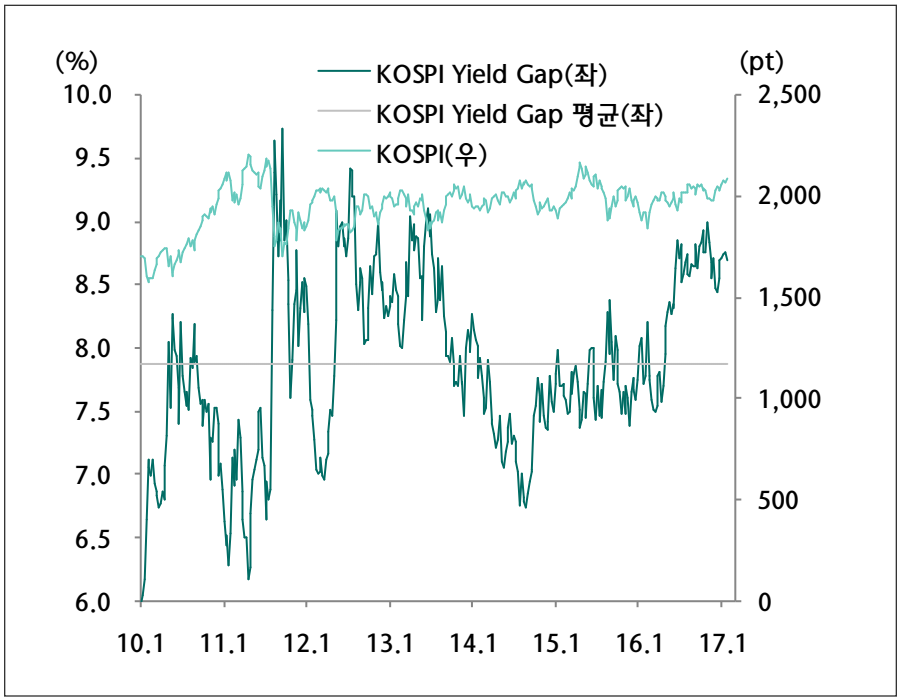
- KOSPI의 12개월 예상EPS는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2014년 이후 KOSPI 평균 12개월 예상PER은 10.2배, 현재 9.6배
- 수익률 기준으로 5~6%의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KOSPI 1분기 상단을 2,190pt으로 기존 시각 유지
- 2월 KOSPI 예상밴드 2,020~2,150pt

국내 증시 PER의 평균 회귀 예상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현재 국내 Yield Gap 8.7%. 2010년 이후 평균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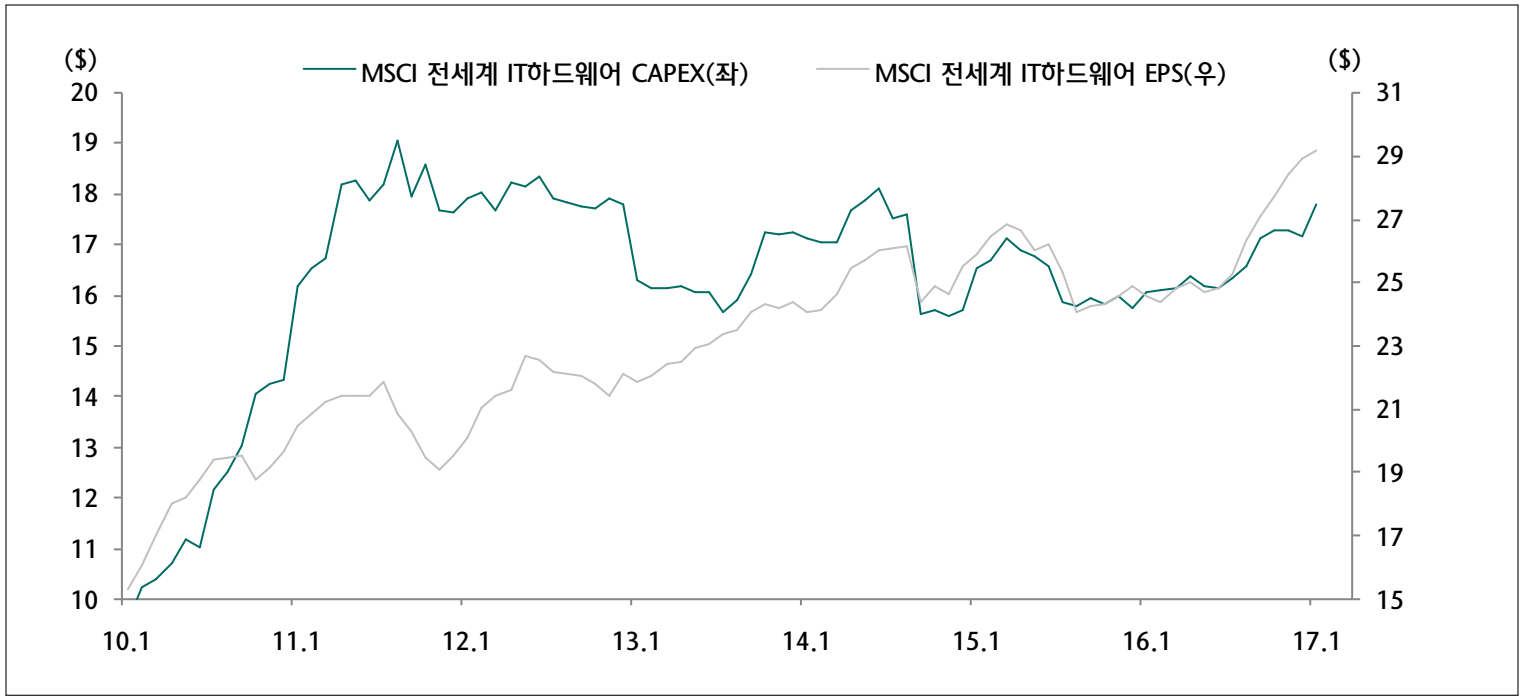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① 공전의 축: IT 하드웨어가 주도하는 글로벌 증시는 변함이 없을 것

- MSCI AC World IT하드웨어 12개월 예상EPS는 꾸준히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
- 최근에는 이익에 후행성에 있는 자본지출(CAPEX)도 재차 늘어나는 모습

글로벌 IT하드웨어 기업 이익 증가는 꾸준히 진행 중. 최근 CAPEX도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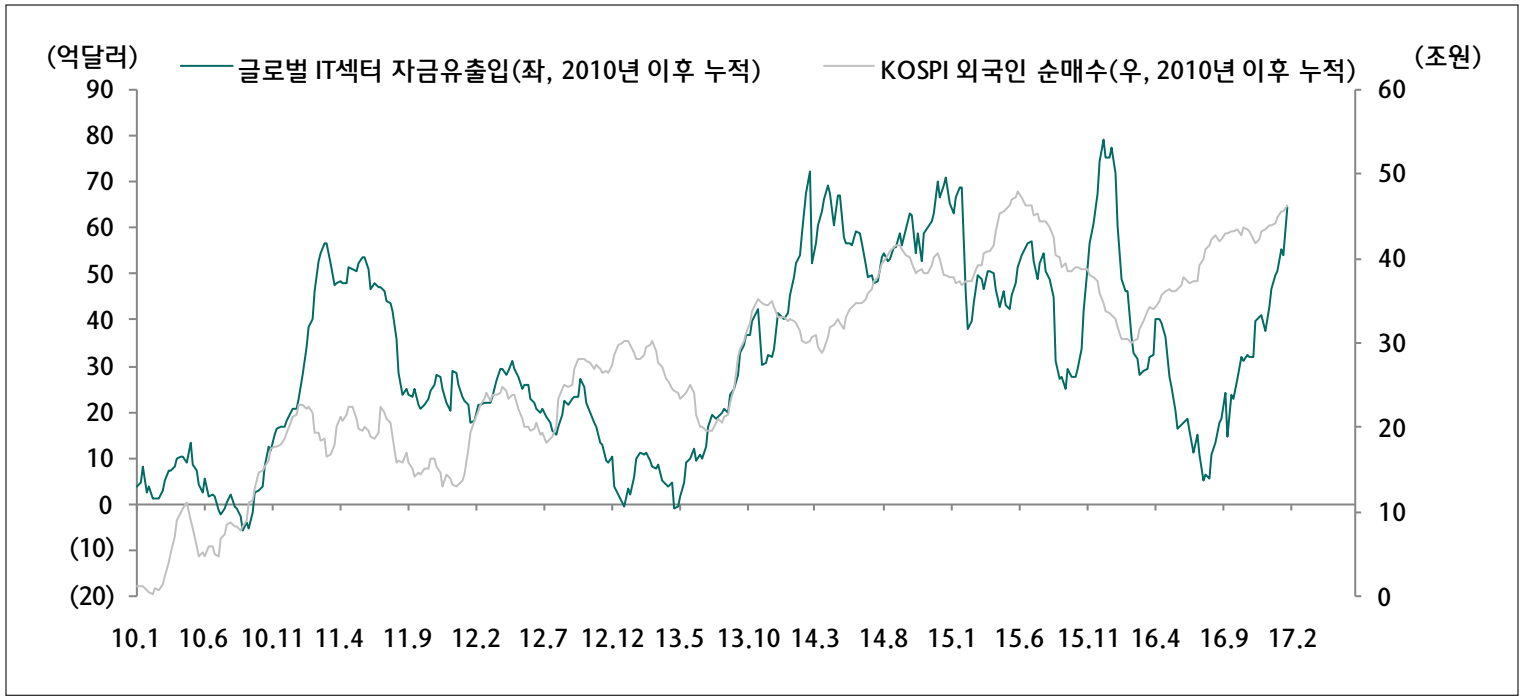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IT 하드웨어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여전할 것

- 글로벌 IT섹터 주식형 펀드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자금 유입 지속
- 글로벌 IT섹터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국면에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도 염두

글로벌 IT섹터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국면에서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관심이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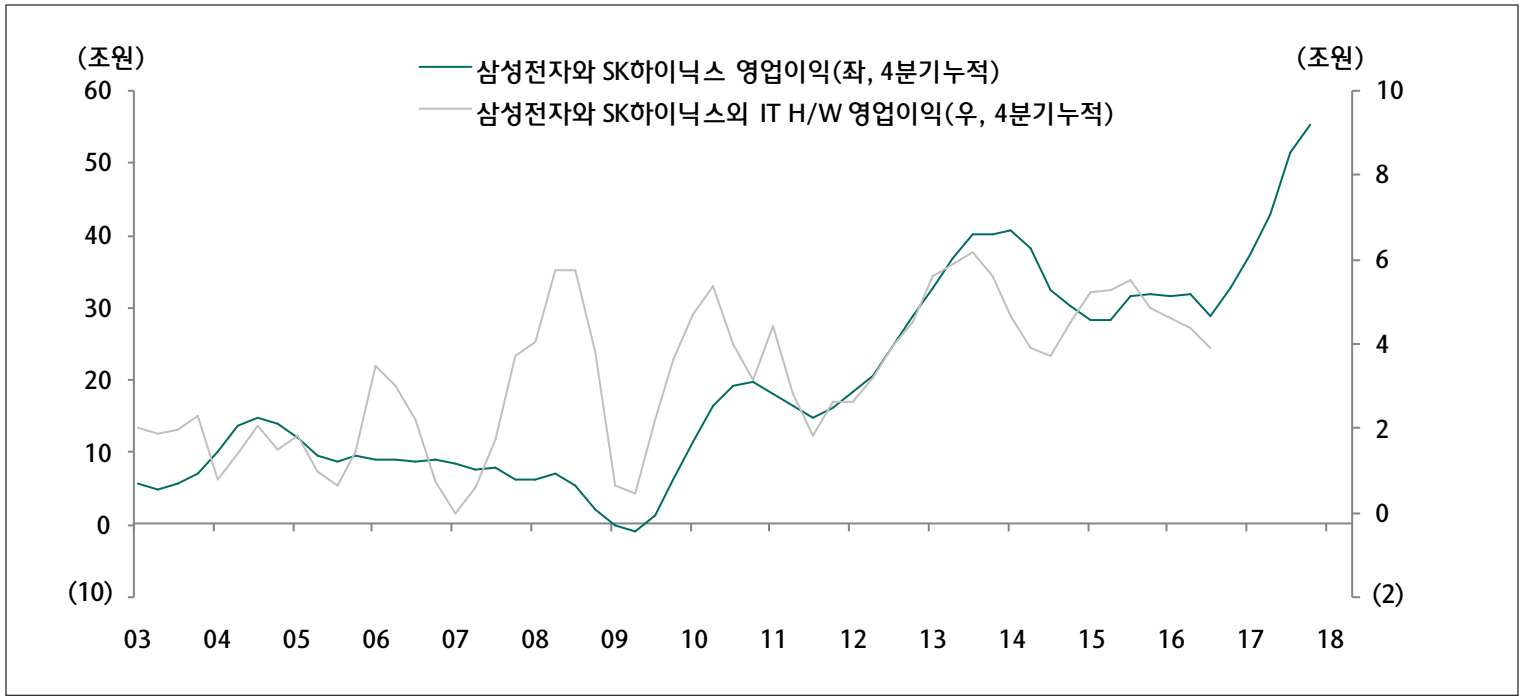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1): 이익, 낙수효과

-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국내 IT 하드웨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업종간의 영업이익 추이가 유사
- 국내 증시에서도 IT하드웨어 중심으로 한 이익성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참고로 201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32.5조원. 2017년 최대 55.3조원, 최소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 여타 IT하드웨어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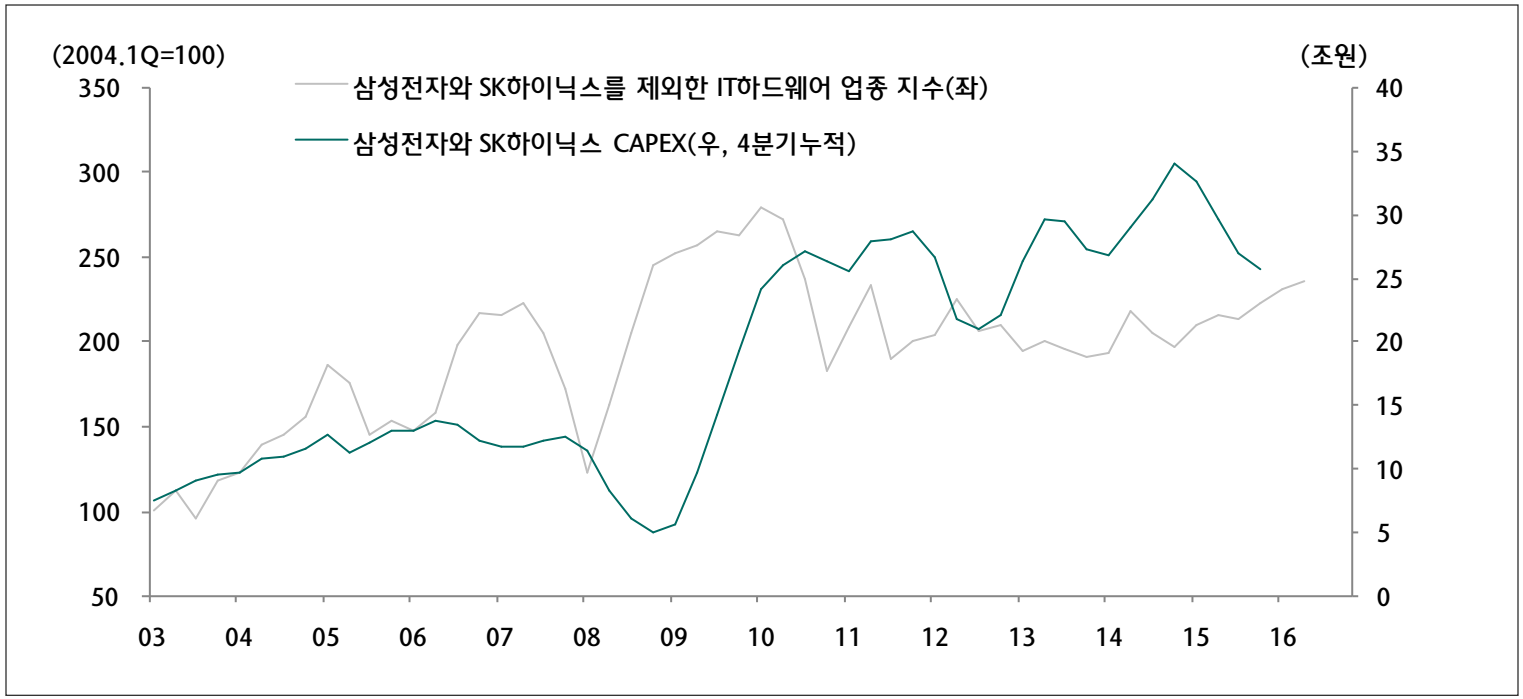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2): 주가, 확산효과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확대 발표 여부는 여타 IT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상승에 촉매제
- 2010년 4분기 고점 대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IT 하드웨어 업종 주가는 84% 수준
- 아직은 주가 상승 촉매제(CAPEX 증가)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판단

IT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상승 촉매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APEX 증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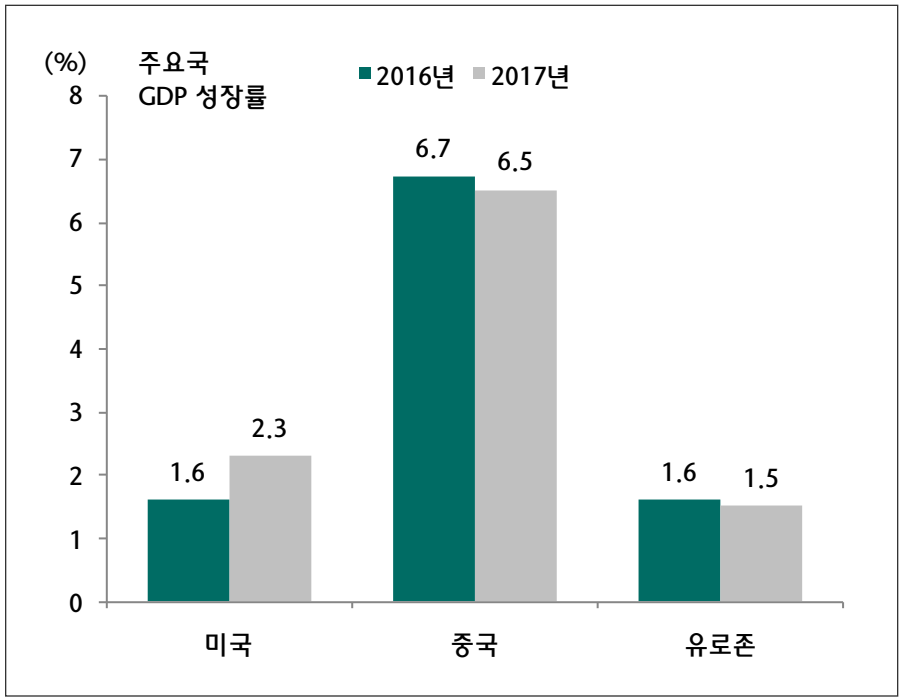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② 2017년 성장 보다는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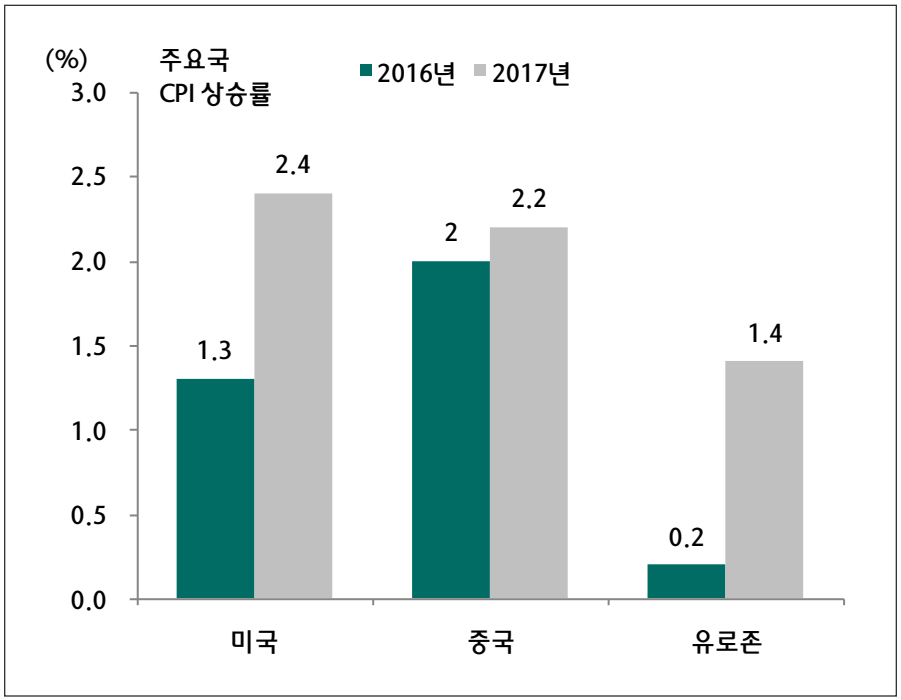
- 2016년과 17년 GDP성장률: 미국 1.6%→2.3%(+0.7%p), 중국 6.7%→6.5%(-0.2%p), 유로존 1.6%→1.5%(-0.1%p)
- 2016년과 17년 CPI상승률: 미국 1.3%→2.4%(+1.1%p), 중국 2.0%→2.2%(+0.2%p), 유로존 0.2%→1.4%(+1.2%p)

2017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보다는…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물가상승률이 보다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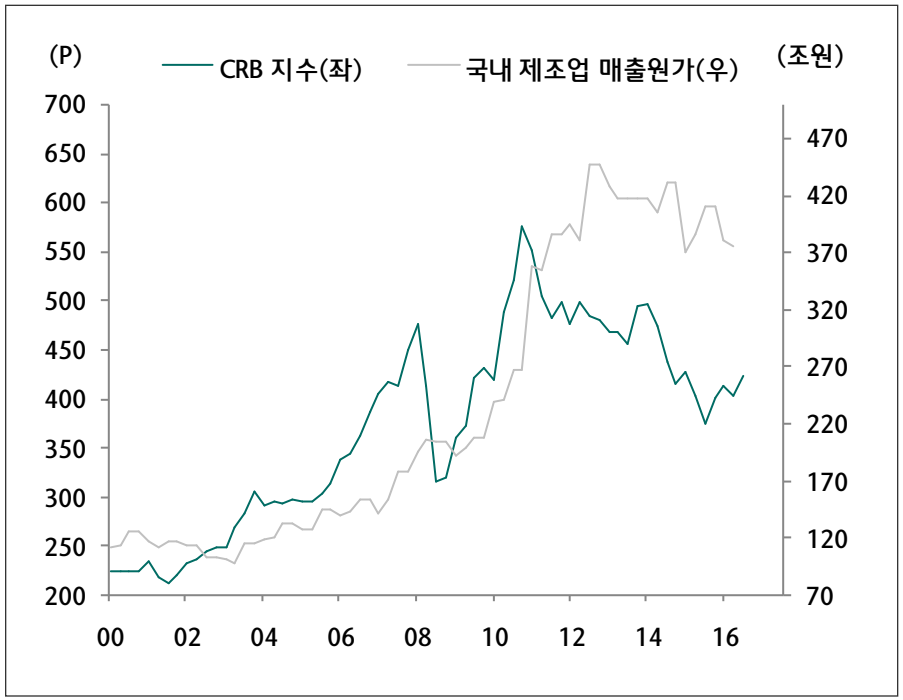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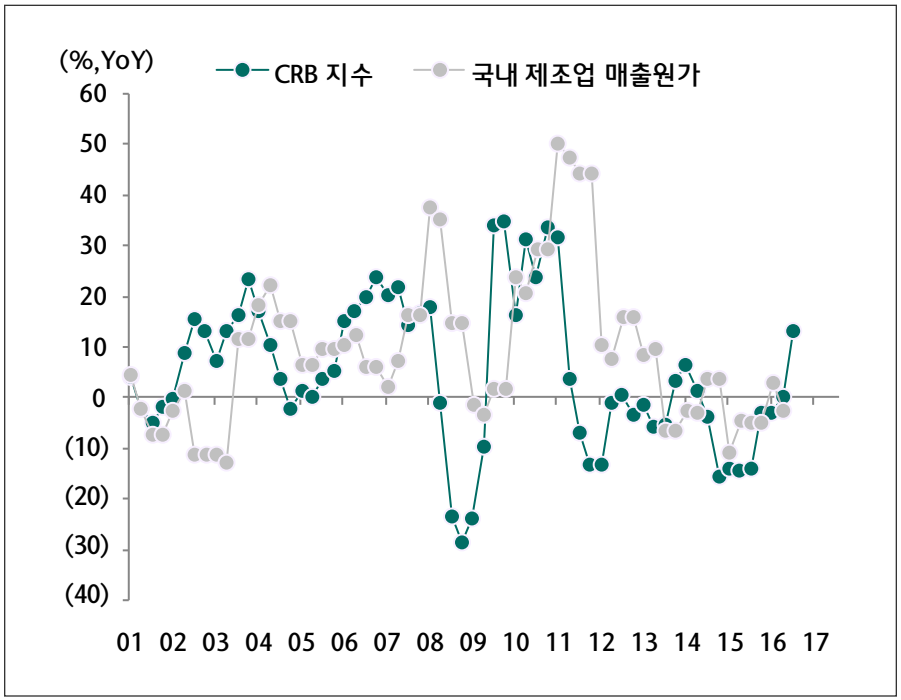
- 전반적인 물가회복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비용 증가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국제상품가격 반등은 기업 비용증가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 실제로 국내 제조업 매출원가는 국제상품가격(CRB지수)에 3분기 후행

국제 상품가격 반등: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국내 제조업 매출원가는 상품가격에 3분기 후행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증가율 민감도: 가격전가력 높은 업종 관심

업종	2012~16년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민감도	2015~17년 민감도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민감도	민감도 수준	민감도 변화
	과거 5년	최근 3년		
화학	0.77	0.98	높음	상승
철강	0.70	0.98	높음	상승
반도체	1.30	0.95	높음	하락
IT가전	0.74	0.71	높음	하락
상사,자본재	0.64	0.57	높음	하락
에너지	0.38	0.48	높음	상승
유틸리티	0.77	0.44	높음	하락
기계	0.97	0.35	높음	하락
호텔,레저	0.23	0.29	높음	상승
국내(금융업 제외)	0.47	0.24	평균	하락
소프트웨어	0.21	0.21	낮음	상승
자동차	0.62	0.18	낮음	하락
조선	0.45	0.14	낮음	하락
미디어,교육	0.34	0.13	낮음	하락
건강관리	0.07	0.07	낮음	하락
통신서비스	0.04	0.00	낮음	하락
소매(유통)	0.14	-0.01	낮음	하락
화장품,의류	0.37	-0.02	낮음	하락
필수소비재	0.24	-0.03	낮음	하락
IT하드웨어	0.58	-0.12	낮음	하락
디스플레이	0.48	-0.18	낮음	하락
운송	0.82	-0.20	낮음	하락
건설	0.12	-0.24	낮음	하락
비철금속	-0.20	-0.25	낮음	하락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증가율 민감도: 가격전가력 높은 기업

업종	종목	과거 5년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민감도	최근 3년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민감도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12개월 예상(배)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PBR	PER
화학	금호석유	0.59	0.95	3,954.0	4,846.8	167.7	260.2	1.3	14.5
철강	세아제강	0.75	1.03	1,772.2	1,891.0	77.5	103.5	0.5	8.9
반도체	SK하이닉스	1.36	1.47	16,913.0	23,309.6	3,098.4	7,551.2	1.2	6.5
반도체	솔브레인	1.12	1.21	724.6	810.0	112.7	132.2	1.2	7.7
상사,자본재	현대상사	0.70	0.98	3,495.0	4,373.0	27.0	35.0	0.5	4.7
에너지	S-Oil	0.83	0.85	16,253.5	19,402.7	1,697.9	1,657.4	7.3	1.3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③ 미국 대통령 취임사는 주도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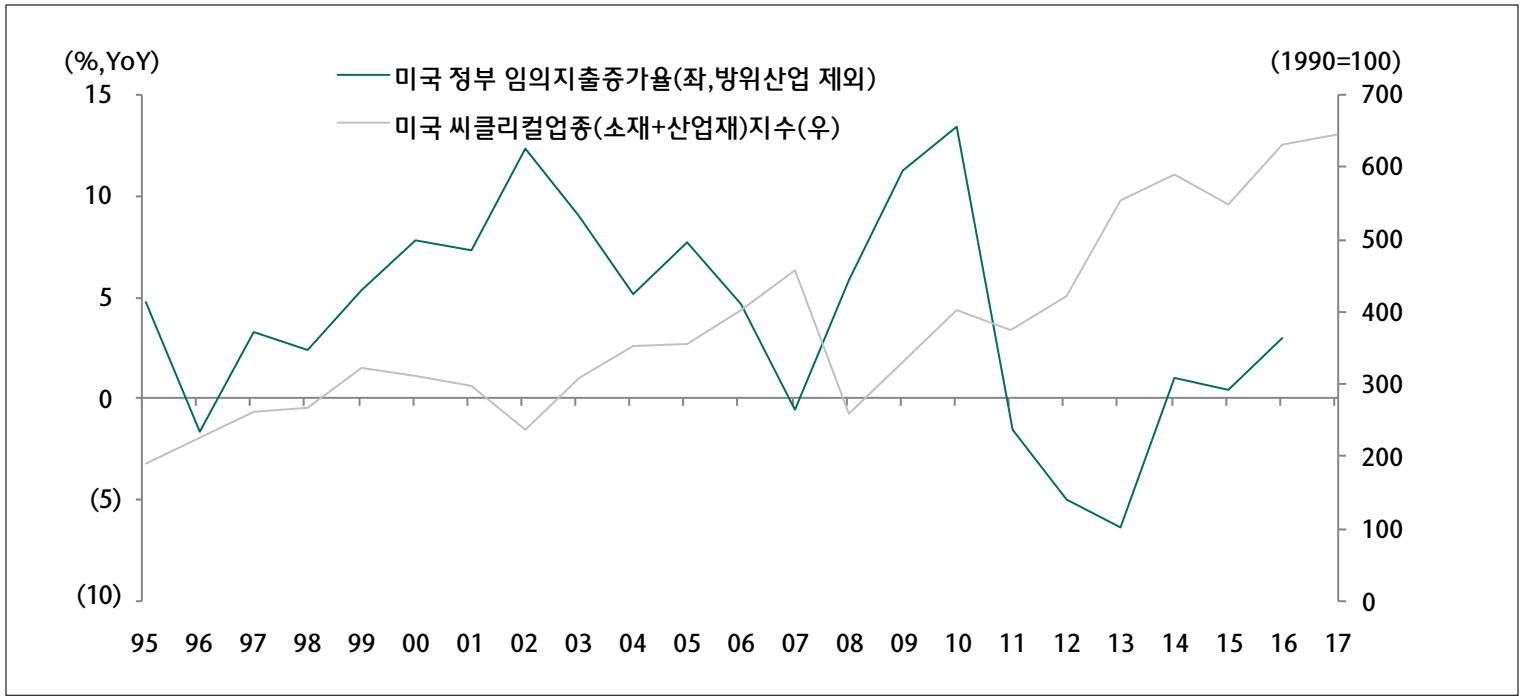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한 내용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주도주)
조지 워커 부시 1기(2001~04년)	감세(소득세 인하)와 방어체제(방위비 증가) 구축	2001년 S&P500지수 수익률: -13% 백화점업종: +27%/방위산업업종: +21%
조지 워커 부시 2기(2005~08년)	사회보장체제 개혁(민영화) 강조 :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중요	2005년 S&P500지수 수익률: +3% 에너지업종: +29%/생명보험업종: 21%
버락 오바마 1기(2009~12년)	오바마케어를 공식적으로 언급 : 의료체계의 질과 비용 절감 기술 도입	2009년 의료 서비스 및 기기(+32%/S&P500 +23%) 2010년은 생명공학(+15%/+13%) 2011년은 제약(+13%/보합)
버락 오바마 2기(2013~16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지 에너지원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강조	2013년 미국 ECO지수의 2013년 수익률 +58%로 석유/탐사업종지수(+26%)와 S&P500(+30%)보다 높음 테슬라의 주가는 30달러대에서 200달러로 급등
도날드 트럼프(2017년)	첫째, 인프라 투자 확대 둘째, 아메리카 퍼스트 셋째, 새로운 동맹 창설과 테러리즘 척결 넷째, 우주산업 발전과 신기술 활용	국내 씨클리컬 중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국내 미국 수출품목 중 중간재 성격이 강한 제품

자료: 하나금융투자

트럼프 취임사,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한번 강조

-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
-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씨클리컬(소재+산업재) 업종이 강세를 보임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미국 씨클리컬 업종 주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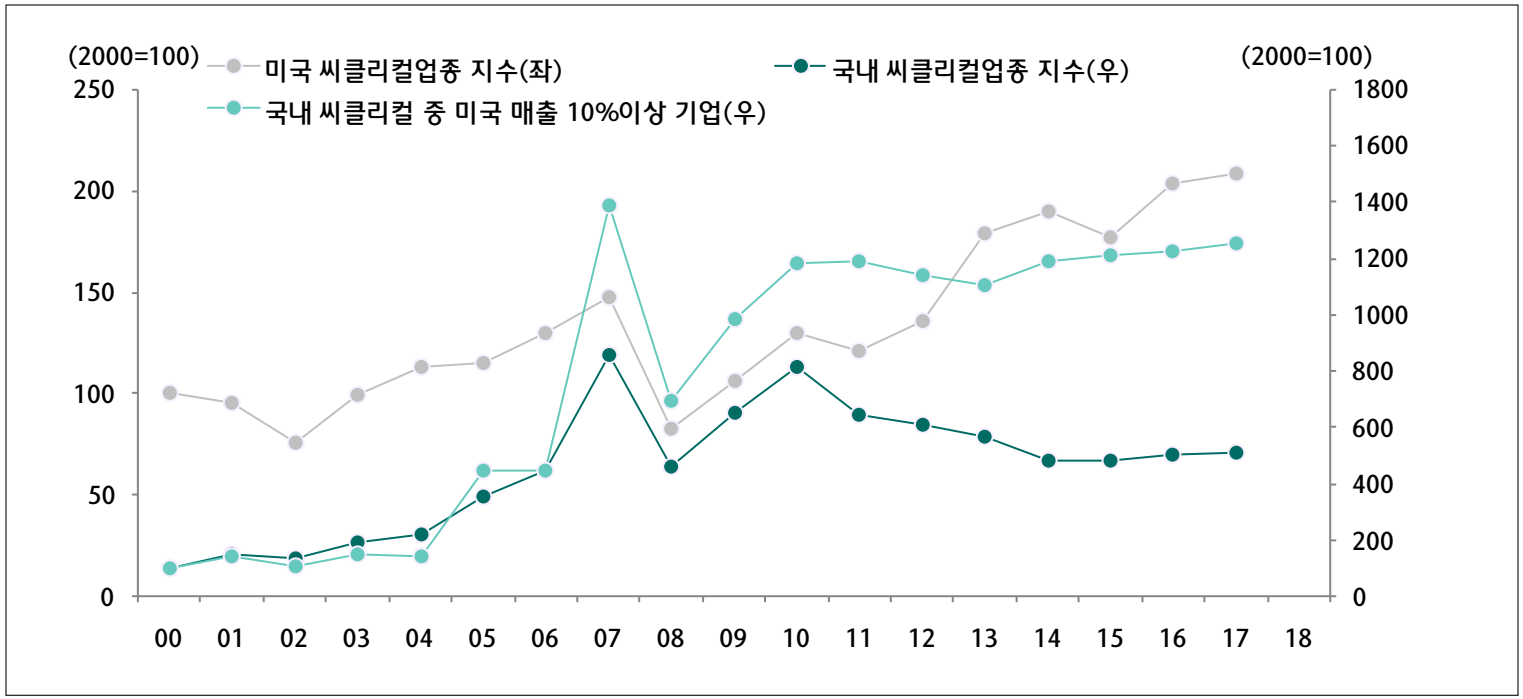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미국 내 매출비중이 높은 국내 씨클리컬 업종에 관심

- 국내 씨클리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미국 매출비중이 10%를 넘는 기업과 미국 씨클리컬 업종간의 주가 연관성 (2000년 이후 주가 상관계수 0.73/국내 전체 씨클리컬업종 0.44)이 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음

미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의 주가와 미국 씨클리컬 업종의 주가 연관성이 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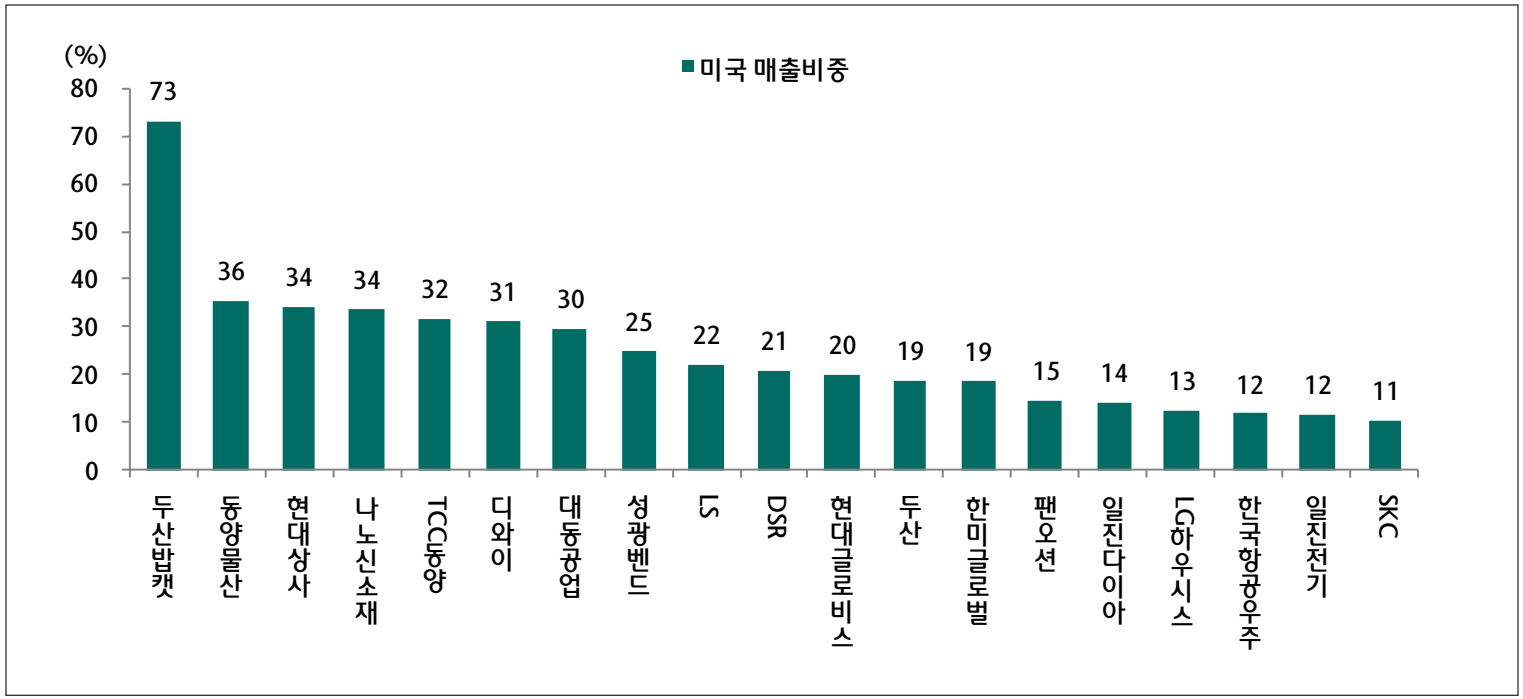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미국 매출비중이 높은 국내 씨클리컬 종목에 관심

- 두산밥캣(미국 매출비중 73%), 엘지하우시스(13%), 한국항공우주(12%), SKC(11%)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

미국 매출 비중이 10% 이상인 국내 씨클리컬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씨클리컬: 미국 매출 비중이 10% 이상 기업의 영업이익/수익성/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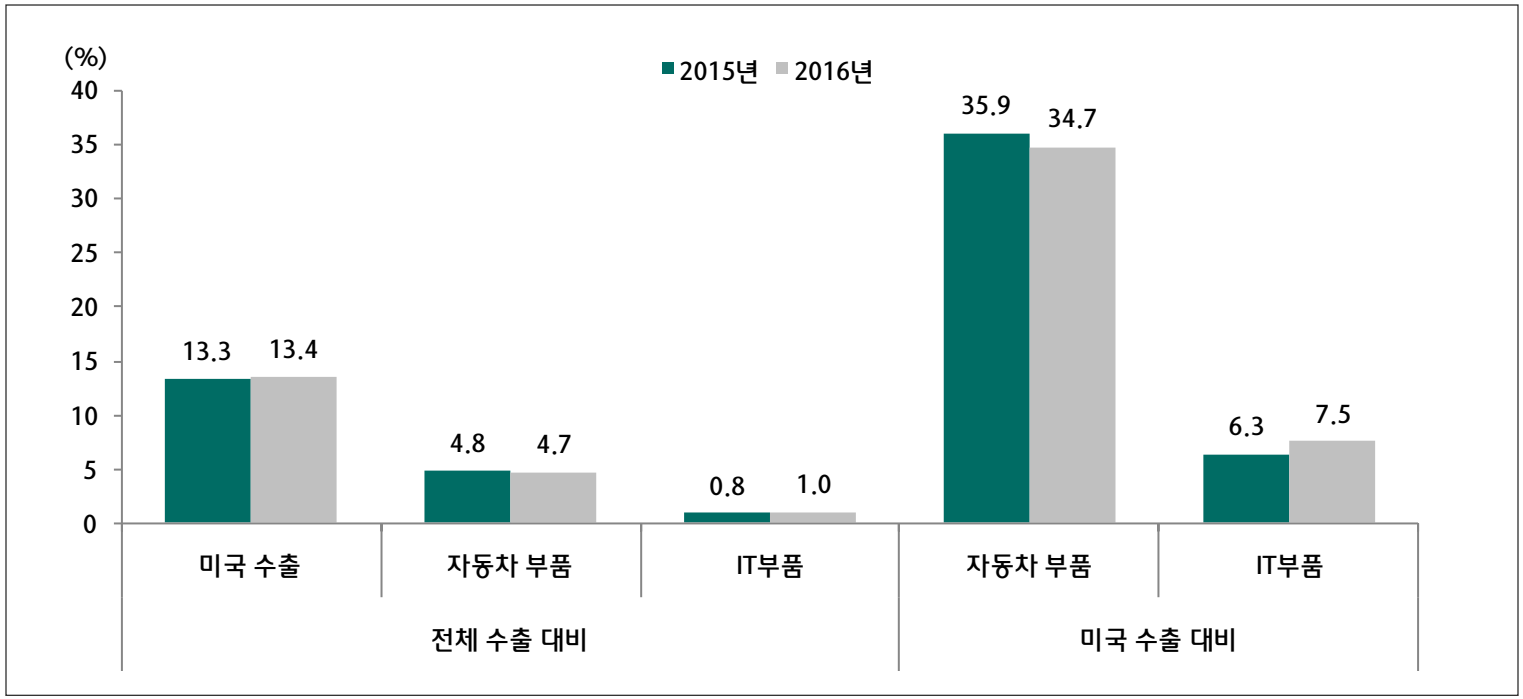
종목	미국 매출비중 (%)	영업이익(십억원)		ROA(%)		12개월 예상(배)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PBR	PER
두산밥캣	73	363.1	477.6	3.3	4.0	1.0	15.5
현대상사	34	27.4	35.0	1.5	3.5	0.5	4.7
성광벤드	25	4.3	7.1	0.6	1.2	0.6	44.2
LS	22	376.2	464.1	2.4	2.7	0.6	9.2
한미글로벌	19	10.5	15.0	6.6	7.3	0.8	8.2
팬오션	15	164.6	213.0	3.5	4.1	0.7	11.2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미국 최종소비재 밸류체인에 속한 업종에도 관심 (1)

-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 시 미국에 중간재(소재 및 부품) 성격이 강한 제품들을 납품하는 업종에 주목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수출 중 중간재 성격을 가진 소재 및 부품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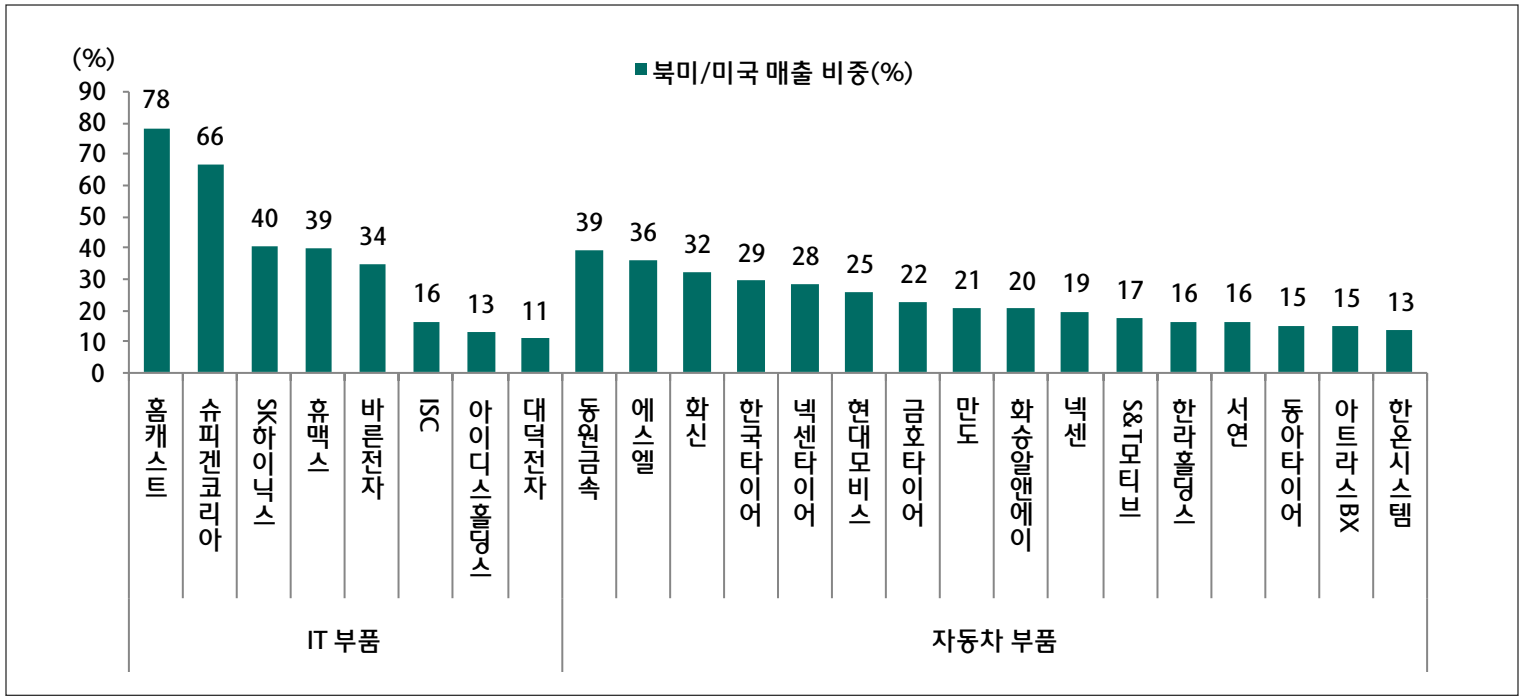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하나금융투자

미국 최종소비재 밸류체인에 속한 업종에도 관심 (2)

- 중간재 성격이 강한 제품 중 국내에서 대미(對美)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35%)와 IT(8%) 부품

자동차와 IT 중간재 성격이 강한 기업들 중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중간재: 미국 매출 비중이 10% 이상 기업의 영업이익/수익성/밸류에이션

업종	종목	미국 매출 비중 (%)	영업이익(십억원)		ROA(%)		12개월 예상(배)	
			2016년	2017년	2016년	2016년	PBR	PER
자동차 부품	에스엘	36	105.4	111.3	6.8	7.1	0.8	6.9
	금호타이어	22	105.5	209.7	-0.8	1.1	1.1	18.0
	만도	21	284.0	325.4	4.4	5.0	1.5	10.8
	한온시스템	13	432.2	481.5	8.3	9.0	2.2	13.6
IT 부품	SK하이닉스	40	3,098.5	7,551.2	7.9	17.5	1.2	6.5
	휴맥스	39	29.5	42.7	0.6	3.2	0.5	8.2
	대덕전자	11	26.8	32.6	4.9	5.8	0.7	12.2

자료: Quantiwise, 하나금융투자